

10 2024 VOL. 340

www.innekorean.or.id
haninnewsinni@gmail.com



재인도네시아한인회

한인뉴스

KOREAN NEWS
Monthly Bulletin of Korean Association





**BE
THE FIRST
MOVER**



KMK GROUP

더욱 '스마트'해진 현대차만의 특별 금융 프로그램

지금 바로 만나보세요.

0% 무이자 할부 혜택 (선수금 20% 시, 2년간)

(대상: 스타게이지 Prime, 아이오닉 5, 아이오닉 6, 쏘타페)

2.4% 초저금리 할부

3년 기준

(대상: 스타게이지 Non Prime, 스타게이지 X, 크레타)

하루 8만 루피아

부담없는 납입금

저선수금 10% ~

최저 3천만 루피아



* 특정모델 또는 지역별로 상이할 수 있으며, 예고없이 변경 될 수 있습니다.



[판매 및 서비스 문의]

- 현대자동차 콜센터 (0-800-1-878-878), 한국어 서비스 3번 선택 / 한국 교민전담팀 대응
- 자세한 내용은 현대차 홈페이지 (www.hyundai.com/id) 를 참조하세요

[한국인 금융상담]

- Sunindo KB Finance : +62 821-2595-5095 왓츠앱 문의
- 신한은행 : 1500881 또는 카카오톡 '신한인도네시아은행' 채널 검색

www.hyundai.com



월간 한인뉴스 10 2024

한인뉴스 후원사로 초대합니다

1996년 7월 15일 창간된 한인뉴스는 한인사회의
소식과 정보통으로 한 호의 결호도 없이 발행되어
왔습니다.

2012년 세계한인회보콘테스트 대상 수상을
계기로 더욱 다양하고 수준 높은 콘텐츠를
확보하여 한인사회의 중추적인 정론지로서의
위상을 갖추려 합니다.

저희와 동참할 후원사를 초대하오니,
한인기업들의 많은 참여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한인뉴스발행인 박재한 배상

후원문의 : 한인뉴스 편집부
전 화 : 021-521-2515

발행처 재인도네시아한인회

발행인 박재한

편집인 김희년

논설위원 신성철

편집장 홍석영

편집위원 최인실, 이영미, 조은아

표지 편집국

디자이너 Diki Satria Nugraha

인쇄 알림인도

전화 (021) 521-2515, 527-2054

팩스 (021) 526-8444

주소 Jl. Gatot Subroto Kav. 58, Jakarta

이메일 haninnewsinni@gmail.com

웹사이트 <http://www.innekorean.or.id>



표지 사진 :
인도네시아한인이주 104주년 기념'
한인의 날', <소리누리예술단>
초청공연
KOREA 360
2024년 9월20일

6

[신성철 논설위원 칼럼]

”인도네시아로 간 오랑꼬레아”를 출간하며

8

‘한인의 날’ 맞이 <소리누리예술단>

초청공연

13

2024년도 제2차 회장단 회의

14

PT Baterai Listrik Motorindo

전기오토바이 eMOA 출시

16

[김재훈의 ‘세무 TALK’]

신규주택 및 아파트 구매시 부가세

인센티브 제도

17

롯데마트, K-페어 개최



contents

2024. 10. 통권 340호

18

월간 뉴스 브리핑
〈데일리 인도네시아〉

22

[여기가 맛집]
Baliren Restoran
〈황지영〉

25

[디카시 풍경] 가을날 기행
〈임주경〉

26

[배동선 작가의 술술 읽히는
인도네시아 역사 14]
디포네고로 왕자와 자바전쟁

30

[서상영의 한방칼럼 18]
생활 한의학 2

35

우리가 기억해야 할 역사
〈조현빈〉

36

[자카르타의 아침]
친구 부부의 자카르타 골프 여행
〈손상현〉

39

105회 경남 전국체전
재인니선수단 출정식

40

[행복에세이]
여백의 미, 정리 〈교아라〉

42

[반짝이는 그림책 이야기]
“오래된 숲의 노래” 〈김별님〉

45

[칼럼] 화산폭발과 지진의 흔적을
품은 인도네시아의 전설들 〈조연숙〉

46

Hanng the Yoga 1 〈Michelle〉

50

다문화 속 희망의 색을 덧칠하다
〈한동훈〉

52

한국-인도네시아 우정의
50년 여정 10
〈신성철〉

56

한인니문화연구원, ‘202년 문학상
시상식 및 문화예술공연’ 성황리 개최

58

‘Mangrow with Me’
〈박승현〉

60

한국서협 인지니회 현대작가전

61

[신간안내]
인도네시아로 간 오랑꼬레아

62

인도네시아 법 해설(338)
채무보증 2 〈이승민〉

68

생활정보

<인도네시아로 간 오랑꼬레아>를 출간하며



논설위원 신성철

인구 2억8천만명에 달하는 세계 4위 인구 대국 인도네시아는 중위연령 29세, 생산가능인구가 약 70%인 ‘젊은 국가’이다. 인도네시아는 동남아 전체 인구의 40%에 걸맞게 국내총생산(GDP) 기준 경제 규모도 동남아의 40%를 차지할 정도로 동남아의 선도 국가이다. 필자가 인도네시아에 관심을 갖기 시작한 40여년 전 인도네시아는 ‘미래의 대국’이라는 수식어 늘 붙어 있었다. 이후 잠재력이 발현되는데 적지 않은 시간이 흘렀다. 최근 ‘미래의 대국’이 기지개를 켜고 꿈틀거리고 있다.

한국인에게 인도네시아는 낯선 국가이다. 1년 내내 푸른 잎이 무성한 여름만 있는 날씨와 17,000여개의 섬으로 이루어진 광활한 영토, 이슬람 문화와 인도 문화가 공존하는 곳. 인도네시아 영토의 최서단과 최동단의 거리는 약 5,100km로 서울~자카르타 거리와 비슷한 정도로 길게 펼쳐져 있다. “발리는 갔다왔는데 아직 인도네시아는 못 가봤어요”라고 말할 만큼 한국인에게 인도네시아는 아직도 낯선 나라다.

한국에서 한국인은 주류이자 평범한 존재이지만 비행기를 타고 인도네시아에 내리는 순간, 인도네시아인들 사이에서 오랑 꼬레아(orang Korea)는 이질감이 가득한 존재가 된다. 요즘은 인도네시아인들이 한국 드라마와 영화 같은 한류 콘텐츠를 통해서 그리고 인도네시아에 사는 한국인을 경험하며 한국인에 대해 인지하고 있다. 하지만 일제시대에 인도네시아에 온 조선인들은 일본인이 아닌 조선인이라고 애써 설명해야 했다. 1960년대에 온 대한민국 사람들은 북한 사람이 아니라 남한 사람이라고, 중국인도 일본인도 아닌 한국인이라고 스스로를 설명해야 했다. 한류를 필두로 우리나라의 국격이 높아져 이제 현지인들이 먼저 다가와 “한국사람입니까? 반갑습니다!”라고 묻는다.

한국기업과 한국인들이 왜 인도네시아로 가서, 어떻게 정착했는지에 대한 궁금한 점을 풀어주는 안내서이다. 이 책은 인도네시아에서 활동하고 있는 한국 기업과 한국인에 대한 이야기이다. 한국과 인도네시아가 외교관계를 어떻게 발전시켜 왔는지, 한국기업은 인도네시아에서 어떤 사업을 어떻게 펼쳤는지, 한국인들은 인도네시아에서 어떻게 살고 있는지 등에 관한 기록이다. 1장 한국인, 2장 경제·비즈니스, 3장 외교로 구성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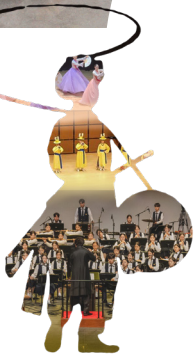
1장에는 인도네시아 1호 한인 장운원부터 1940년대에는 일제가 강제로 파견한 포로 감시원 등 일본군 군속의 대규모 인도네시아 이주와 항일운동. 그리고 일부는 일제 패망 후에 귀국하지 않고 잔류한 한인들 이야기. 한인회와 한인단체, 정부기관, 한국학교 등을 통해 한인사회가 성장하는 과정을 기록했고, 한인들의 생활을 살피고 현지에서 정체성을 유지하며 삶을 풍성하게 만들어 가는 모습도 담았다. 다만 이 책은 한인회 주관으로 진행된 만큼 한인회와 한국대사관의 기록을 중심으로 서술되어, 좀 더 다양한 한국인들의 이야기를 담지 못한 점은 아쉬움으로 남는다.

2장에는 지난 50년간 한국기업이 인도네시아에 진출한 시기와 산업을 살펴봄으로써 양국의 경제개발이 상호보완적으로 맞물려 진행됐음을 보여준다. 한국기업이 인도네시아에 첫발을 디딘 후 2023년 현재까지 역사를 크게 네 단계로 나누어 서술했다. 각각의 출발점은 1968년, 1986년, 2003년, 2018년이다. 한국기업의 인도네시아 진출과 성장, 안정적인 정착의 반세기는 불굴의 의지와 열정을 가진 한국인의 도전 정신을 통해서 일구어낸 값진 시간이다. 또한 인도네시아는 한국기업의 해외 시장 개척에 발판을 마련해 준 우방국으로서 큰 의미를 가진다.

3장에는 한국과 인도네시아의 외교 관계 발전 단계에 따라 태동기, 초창기, 성장기, 제1차 성숙기, 제2차 성숙기 등 다섯 단계로 나누었으며, 각 시기별 챕터 서두에 시대적 특징을 요약하여 전체 흐름을 파악할 수 있도록 했다.

이주자의 삶은 녹록하지 않다. 인도네시아에서는 외국인으로서 조심해야 하고, 한국에서는 물정을 모르는 재외동포로서 어색해 한다. 한 사람이 고국의 보호와 안정감을 박차고 해외로 나가게 하는 동력은 무엇일까? 이 책은 단기간 머물다 가는 여행자의 시선이 아닌 장기간 일하며 살고 있는 거주자이자 생활인의 기록이다. 이 책이 한국과 한국인들이 인도네시아로 간 한인에 대해 궁금해하는 점을 설명해 줄 수 있기를 바란다.

이제 한국과 인도네시아는 수교 반세기를 맞았다. 양국이 외교와 국방, 경제와 비즈니스에서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가 됐다. 이 책의 주인공들은 인도네시아에 사는 한국인으로, 인도네시아에 관심과 애정이 크고, 인도네시아 상황에 많은 영향을 받는 사람들이다. 한편으로는 수시로 한국을 오가고, 언젠가는 한국으로 돌아가야 하므로, 시선이 한국으로 향하는 사람들이다. 이 책을 통해 한국과 인도네시아가 협력하고 우정을 나누며 함께 성장할 수 있는 상호보완적인 관계에 있고, 그 관계 안에서 움직이는 한국인들을 발견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



‘한인의 날’ 맞이

국립국악고등학교 소리누리예술단 초청공연

인도네시아한인이주 104주년 기념 ‘한인의 날’

재인도네시아한인회(회장 박재한)는 9월 20일 인도네시아한인이주 104주년을 기념하는 ‘한인의 날’을 맞아 초청공연을 비롯한 다채로운 행사를 열었다.

자카르타 꾸닝안 소재 롯데 몰 KOREA 360에서 국립국악고등학교 <소리누리예술단>의 초청공연으로 한인과 인도네시아인들이 자유롭게 관람할 수 있는 오픈 무대를 갖고 오랜만에 가까이에서 우리의 가락과 소리, 전통 무용을 통한 문화 소통의 장을 펼쳤다.



재인도네시아한인회는 2020년 9월 20일, 인도네시아에 최초의 한인이 첫발을 내딛은 100년을 맞이하여 그 첫 해에 ‘한인의 날’로 제정하고 인도네시아한인과 인도네시아인들이 함께하는 축제를 계획하였다. 그러나 코로나 19로 인해 외부의 모임없이 ‘한인이주 100년사’의 편찬 등으로 갈음했다.





박재한 한인회장은 ‘한인의 날’ 기념식 환영사에서 “지난 2023년은 한국과 인도네시아 수교 50주년 기념행사에 집중하여 별도의 ‘한인의 날’ 행사가 진행되지 않았지만 2024년 올해는 인도네시아 ‘한인의 날’을 되찾은 특별한 기념행사를 준비했다. <소리누리예술단> 학생들의 전통문화예술 공연을 통한 한류의 예술적 지평을 넓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강원준 총영사는 “이 행사는 우리의 정체성과 뿌리를 기억하게 하고, 새로운 세대에게는 자부심

을 심어주며, 더 나아가 해외에서 우리의 전통 예술의 우수성을 보여주는 귀중한 시간이 될 것”이라며 축사를 전했다.

국립 국악고 <소리누리예술단>은 군영의 행진을 위한 ‘대취타’를 첫무대로 태평무, 사물놀이, 국악관현악 연주 등, 90분간의 쉴 틈 없는 무대로 관객의 눈과 귀를 사로잡으며 많은 호응을 이끌었다. 학생 30명과 5인의 교사로 구성된 <소리누리예술단>(지휘 백승진)은 지난 9일, 자카르타에



도착하여 자카르타한국국제학교 나래홀에서 재학생들을 대상으로 두 차례의 공연을 하였고 타국에서 만나는 동포들에 대한 기대감으로 활기찬 모습이었다. 성장기 청소년들의 재능을 뽐어내는 열정의 무대로 세대가 하나가 되고, 인도네시아인과 한인이 하나가 될 수 있는 한국의 전통음악과 한국무용공연을 한 무대에서 즐길 수 있었다.

또한 한인문화예술총연합회 소속의 자카르타어린이합창단(지휘 송혜선, 반주 조선아)과 성악가 오유미(첼로 김아람, 피아노 조선아, 재인니한인음악협회)의 찬조 공연은 우리 이웃의 친근한 무대로 많은 박수를 받았다.

공연을 관람한 권영경(자카르타 거주) 한인동포는 “캘리그라피, 보자기가방 만들기 등의 체험부스들도 잘 준비되어 있는데 많은 사람이 참여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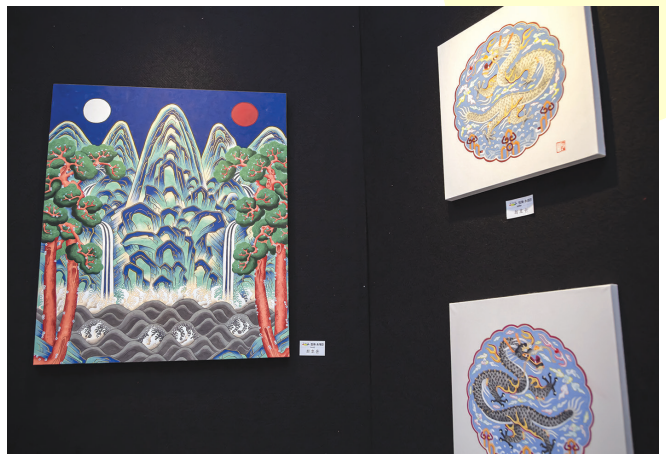




지 못한 것이 아쉬웠다. 한국에서 초청된 국악고등학교의 공연을 지켜보며 한껏 흥이 오른 어르신과 열심히 손뼉을 치는 아이들, 호기심 어린 눈으로 발길을 멈추고 지켜보던 인도네시아 사람들을 보며 묘한 몽클함이 밀려왔다” 고 소감을 밝혔다.

후원: KOREA 360, 한인문예총, 자카르타한국국제학교





2024년도 제 2차 회장단 회의



재인도네시아한인회는 2024년 9월 18일, 땅그랑 한식당에서 박재한 한인회 회장과 부회장 사무국장이 참석한 가운데 2024년도 제 2차 회장단 회의를 가졌다.

회장단회의 재적임원 28명 중 14명이 참석하여 선거관리위원회구성을 논의, 확정했다.

박재한 회장은 제 7대 한인회장 선거가 바르고 투명하게 마무리될 수 있도록 선거관리위원회가 역할을 다해주길 바라며 임기 6년의 마무리를 함께 하는 회장단에게 고마움을 전했다.

한인회는 이날 주요 안건인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 손한평 수석부회장을 선관위원장으로 하여 하재수, 이정호, 이승민, 최태립 선관위원을 결정했다. 10월 11일 입후보자 등록 안내를 시작으로 10월 25일~11월 8일 입후보자 등록 공고 및 등록, 11월 8일 선거인 및 이사회 임시총회 소집 공고 11월 9일~10일 입후보자 등록 신청 심사, 11월 11일 입후보자 공고 후 11월 14일 제7대 한인회장을 선출할 예정이다.

참석자는 박재한, 손한평, 채영애, 김종현, 신규태, 박성대, 이정휴, 강선학, 오인택, 하재수, 김석, 김문수, 이정호, 최인실 등이었다.

한인기업, 인도네시아 서민속으로 한 걸음 더...

PT. Baterai Listrik Motorindo 박재한 대표,

전기오토바이 eMOA 출시



PT.Baterai Listrik Motorindo(eMOA 생산 업체)는 지난 5일 짜카랑에서 인도네시아 전기 오토바이 자체브랜드인 eMOA로 E1과 E2, 2종의 배터리팩 및 전기오토바이 생산공장을 공식 출범했다.

이날에는 PT.Baterai Listrik Motorindo 대표인 재인도네시아 한인회 박재한회장, Bambang Soesatyo 국회 상원의장이자 인도네시아 오토바이 협회(IMI) 회장, 주인도네시아 대한민국 대사관 조성태 국토회관, 재인도네시아 한인상공회의소 이강현 회장, Robert J Kardinal 국회의원 등 많은 한국과 인도네시아 관계자가 참석해 공식 런칭을 축하했다.

현재 인도네시아에 석유연료를 사용하는 약 1억 3천만여대의 오토바이로 인해 배출하는 배기가스와 소음은 한계에 달하고 있다. 이로 인해 전기 오토바이로의 전환이 환영을 받을 시의적절한 런칭이라고 각 기관과 관계자들은 평가하고 있다.

박재한 대표는 인사말에서 “미래지향적 깨끗하고 지속 가능한 혁신적인 교통수단인 eMOA 전기 오토바이를 인도네시아 시장에 소개하는 역사적인 날이다. 인도네시아는 세계에서 가장 큰 오토바이 시장 중 하나이며 오토바이는 인도네시아 경

제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지만, 동시에 환경과 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전기 오토바이의 보급을 촉진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도입해 왔다. eMOA는 이러한 국가적 비전을 지원하고, 인도네시아의 미래를 책임질 우리의 환경과 사회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으면 한다. 또한, eMOA는 현지에서의 생산과 고용 창출로 인도네시아 경제의 발전에 기여하고자 한다. 더 많은 사람들이 우리의 비전에 동참할 수 있도록 하여 인도네시아를 아시아의 전기 모빌리티 리더로 만들어 나갈 것” 이라고 포부를 밝혔다.

이어 Bambang Soesatyo 국회 상원의장은 축사에서 2030년에는 인도네시아의 전기 오토바이가 1,300만대에 달할 것이라며 공공 인프라 구축과 환경오염 개선 관련 정부 보조금 등 정부 적극 지원에 힘입어 앞으로 eMOA가 인도네시아 전기 오토바이 시장의 산업 성장에 있어서 매우 발전적인 전망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PT.Baterai Listrik Motorindo 박재한 대표는 인도네시아내 한국인 최초로 전기오토바이 생산 조립공장을 설립해 우리 한인기업에 근무하는 근로자를 위한 실질적인 혜택을 주기위해 한국

계 KB은행과 제휴해 기존 할부제의 금융이자를 대폭 낮춘 할부 프로그램으로 한국기업에 근무하는 인도네시아 근로자를 위한 특별한 금융을 지원한다고 덧붙였다.

한인 기업인으로서 인도네시아 서민들의 편의성과 부담을 줄이면서 인도네시아 서민들의 걸음으로 한 걸음 더 나아가고 상생하고자 하는 박재한 대표의 기업경영 철학이 담겨져 있다.

eMOA는 초기단계에서 E1, E2두가지 모델로 소비자에게 선보이고 있으며 앞으로 제품의 대량 생산과 고객의 니즈에 맞는 다양한 모델을 출시하게 될 것이며, 지역경제와 지역 고용인력을 늘리는 효과를 거둘 것으로 본다.

이번에 출시되는 E1,E2의 기능적인 면을 살펴보면 E1의 경우 1회 충전으로 140km(E2는 100Km)이상을 주행할 수 있는 배터리가 내장되어 있다. 최대속도는 70kph이며 4가지 속도 모드가 있고 HUB 오토바이용 선택적 후진모드 기어 기능, 통합 스마트키, 방수기능이 제공된다. 색상

은 새도우 블랙, 코발트 블루, 마룬레드, 스틸그레이, 그라파이트퍼플, 아틱화이트 등 각각 총 6가지가 있다.

이제 출범한 eMOA 생산공장은 현재 인도네시아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변화하는 차세대 교통수단인 전기차의 비전과 함께하는 전기 오토바이 공장으로 성장해 나갈 것이며 특히 주목할 만한 점은 한국기업으로 인도네시아 이륜시장에 도전장을 내밀어 인도네시아 서민들의 발이 되고 운송 및 이동수단을 이끌어 나가는 미래비전형 기업이 되기에 충분한 요건을 갖추었다는 것이다.

아직 해결과제가 많지만 한국기업 특유의 끈기와 집중력으로 인도네시아 전기자동차는 현대, 전기 오토바이는 eMOA라는 고유명사를 만들어 갈 수 있을지 그 귀추가 주목된다.

eMOA의 자세한 정보는 www.emoamotors.com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신규 주택 및 아파트 구매시 부가세 인센티브 제도 PMK 61/2024

글: 김재훈 Indonesia Tax Court Attorney



PERATURAN MENTERI KEUANGAN REPUBLIK INDONESIA
NOMOR 61 TAHUN 2024
TENTANG
INSENTIF TAMBAHAN PAJAK PERTAMBAHAN NILAI ATAS PENYERAHAN
RUMAH TAPAK DAN SATUAN RUMAH SUSUN
YANG DITANGGUNG PEMERINTAH
TAHUN ANGGARAN 2024

지난 9월 11일 재무부장관령 61호 (PMK No.61/2024) 가 공포되었다.

당국은 이번 시행령을 통해서 주택부문의 구매력 자극을 통해 경제 성장을 증대하기 위해 신규 주택 및 아파트에 대해 부가세는 정부가 부담하는 것으로서 주택 및 아파트 판매금액이 50억 루피아 이하인 경우, 20억 루피아까지는 정부가 부가세를 부담하는 것이 이번 시행령의 골자이다.

대상은 개인으로서 NIK 또는 NPWP 가 있는 인도네시아 시민 또는 NPWP 가 있는 외국인을 포함한다. 단, 외국인의 경우 외국인 주택 소유에 관한 법률 및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주택과 아파트를 양도하는 부가세 과세사업자(PKP)는 상기 규정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작성해야 양도시 100% 정부 부담 부가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판매금액이 최대 20억루피아인 주택 또는 아파트를 양도할 경우에 PKP는 07 세금계산서를 사용하면 되고, 20억 루피아를 초과할 경우에는 PKP는 2개의 세금계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20억 루피아까지는 07 세금계산서를 초과금액에 대해서는 01 세금계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이번 시행령은 2024년 9월 과세기간부터 2024년 12월 과세기간까지 적용된다.<끝>



롯데마트, 한국음식과 문화를 소개하는 ‘통큰 한가위’ K-페어 개최

롯데마트 인도네시아가 고객만족도 향상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의 일환으로 ‘통큰 한가위(Happy Chuseok)’ K-페어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2024년 9월 5일부터 9월 18일까지 자카르타 롯데마트 간다리아시티점을 시작으로, 인도네시아 전역의 모든 롯데마트 매장에서 진행됐다.

롯데마트는 다양한 한국 수입 상품을 지속적으로 소개하는 한국의 유명 브랜드로 최신 한국 음식 트렌드를 선도하고 있다.

김태훈 롯데마트 인도네시아 법인장은 “추석은 한국인들에게 가장 중요한 명절 중 하나로, 가족들이 함께 모여 갓 수확한 식재료로 음식을 나누며 풍요로움을 축하하고, 조상에게 감사의 마음을 표하는 시간”이라며 “이번 K-페어를 통해 이러한 감사의 전통을 인도네시아 고객들과 나누고 싶다”고 밝혔다.

또한 “인도네시아에 거주하는 한국 교민들에게도 한국에 대한 그리움이 큰 시기에 고향의 맛을 느낄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통큰 한가위’ K-페어를 기념하기 위해 롯데마트는 인도네시아 고객들에게 한국 문화와 예술을 직접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다. 행사에서는 자이언트 비빔밥을 만들고 무료로 나누는 ‘자이언트 비빔밥 라이브쇼’를 선보였다. 비빔밥은 쌀, 채소, 고기를 조화롭게 섞어 만든 전통 한국 요리로, 행사에 참여한 방문객들에게 무료로 제공됐다.

‘통큰 한가위’ K-페어 기간 동안 고객들은 다양한 즐길거리를 경험할 수 있었다. 매장 입구에는 한국 가을 테마의 포토 부스가 마련돼 가족과 함께 특별한 순간을 담을 수 있었다.

롯데마트 간다리아시티점은 한국 스타일로 쇼핑을 즐길 수 있도록 더욱 쾌적하고 흥미로운 공간으로 변모해 왔다. ‘통큰 한가위’ K-페어 기간 동안에는 특가 상품, 할인 쿠폰 등 다양한 프로모션을 즐길 수 있었다.



2024 년 9월 월간 뉴스 브리핑

제공 : 데일리인도네시아

<경제 비즈니스>

OECD, 인도·인도네시아 향후 2년간 견고한 성장

OECD, 올해 세계 경제 3.2% 성장 전망...” 인플레이 완만”

한국, 반도체 수요 힘입어 올해 2.5%, 내년 2.2% 성장 전망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25일 발간한 중간 경제 전망 보고서에서 인도와 인도네시아는 향후 2년간 견고한 내수 성장을 지속해 인도의 경우 올해와 내년 각 6.7%와 6.8%, 인도네시아는 각 5.1%, 5.2% 성장이 기대된다고 전망했다.

세계 경제가 지정학적 긴장과 글로벌 경기 침체 상황에서 인도와 인도네시아의 견조한 성장세는 이례적이다.

이날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OECD는 올해 세계 경제 성장률을 3.2%로 전망했다. 지난 5월 내놓은 전망 3.1%보다 0.1%포인트 상향 조정했다. OECD는 “글로벌 생산 증가가 유지되고 있고 물가 상승률(인플레이션)도 완만한 수준을 지속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상당수 국가에서 가계 구매력이 아직 코로나 19 이전 수준으로 완전히 회복되진 않았지만 실질 임금 상승이 가계 소득과 지출을 뒷받침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OECD는 물가 상승률 완화와 실질 소득 증가 등이 수요를 뒷받침하면서 내년 세계 국내총생산(GDP)

성장률도 3.2%로 안정될 것으로 전망했다.

물가 상승률은 내년 말까지 대부분의 주요 20개국(G20)에서 목표치를 회복할 것으로 예상했다. G20의 연간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식품, 에너지 가격 하락에 힘입어 올해 5.4%에서 내년 3.3%로 완화할 것이란 게 OECD 전망이다. OECD는 최근의 유가 하락과 글로벌 식량 가격의 지속적인 완화가 단기적으로 소비자 물가 상승률에 추가 하방 압력을 가할 수 있다고 봤다.

경제 성장률을 지역별로 보면 미국은 인플레이션 하락에 따른 실질 임금 상승에 힘입어 민간 소비가 뒷받침되면서 지난 5월 전망과 마찬가지로 올해 2.6%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내년 미국의 GDP 성장률은 다소 둔화한 1.6%로 예측했으나 통화 완화 정책이 성장세를 뒷받침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OECD는 내다봤다.

유럽은 정책 금리 인하와 실질 소득의 추가 회복에 힘입어 올해 0.7%, 내년엔 1.3%로 예측했다. 중국은 정부의 경기 부양책에도 부동산 시장 장기 침체와 소비자 신뢰 약화가 민간 소비 성장의 발목을 잡아 올해 4.9%, 내년엔 4.5%의 성장률로, 목표치인 5%에 못 미친다는 전망이 나왔다.

한국은 글로벌 반도체 수요의 지속적인 강세에 힘입어 수출이 증가하면서 올해 2.5%, 내년엔 2.2%로 안정적인 성장세를 보일 것으로 OECD는 예측했다. 올해 성장률은 5월 전망치보다 0.1%포인트 낮아졌다.

일본은 1분기 실적 부진으로 올해 성장률이 지난 5월 추정치(0.5%)보다도 0.6%포인트나 떨어진 -0.1%로 대폭 하향 조정됐다. 그러나 강력한 실질 임금 상승률이 긴축 정책의 영향을 상쇄하면서 내년엔 1.4% 성장률을 보일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OECD는 그러나 지정학적 긴장과 무역 갈등이 투자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쳐 세계 경제 성장이 예상보다 더 큰 폭으로 둔화할 수 있다고 경계했다. 또 물가 상승률이 완화하고 노동 시장의 압력이 줄어들에 따라 정책 금리 인하는 계속돼야 하지만 인하 시기와 범위는 경제 지표에 따라 신중히 결정돼야 한다고 권고했다.

아울러 재정 지속 가능성을 보장하고 미래의 지출 압박에 대비하기 위해 각국이 지출은 억제하고 세입은 늘리기 위한 강력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주문했다.

서부숨바와에 14억 달러 투자한 구리 제련소 준공

서부누사똥가라주 서부숨바와 지역에 광산 대기업 암만 미네랄 인터내셔널(Amman Mineral International, 이하 암만 미네랄) 소유의 구리 제련소가 지난 9월 23일 준공했다.

귀금속 정제소를 포함하며 약 14억 달러(약 21조 루피아)가 투자된 이 프로젝트는 인도네시아 기업인이 소유한 국내 최초의 구리 제련소이다.

이날 준공식에 참석한 조코 위도도 대통령은 암만 미네랄의 구리 제련소는 인도네시아가 자국의 풍부한 자원을 국내에서 가공해 경제 성장을 도모하는 ‘자원 민족주의’를 실현하는 중요한 이정표라고 평가했다.

조코위는 제련소 개소식에서 “구리 판, 구리 박, 구리 케이블 등 인도네시아에서 생산한 구리 제품이 세계 시장에 호평 받기를 기대한다”며 “더 이상 원자재로 수출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코위는 이어 이 제련소가 가동함에 따라 인도네시아 경제가 내수소비에 덜 의존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인도네시아 국내총생산

(GDP)의 절반 이상이 내수소비가 차지하고 있다. 조코위는 “내수 소비가 GDP의 56%를 차지하고 있다. 우리는 이를 변화시켜야 한다. 우리 자원을 가공함으로써 산업화된 선진 경제로 도약하고, GDP 성장을 위해 소비보다 생산의 비중을 높여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 제련소는 272헥타르 부지에 지어졌으며, 올해 연말 첫 구리 음극판을 생산할 예정이다. 암만 미네랄 제련소는 연간 90만 톤의 구리 농축액을 처리하며, 22만 톤의 구리 음극판, 18톤의 금, 55톤의 은, 85만 톤의 황산 부산물을 생산할 계획이다. 미국 지질조사국(US Geological Survey)이 2024년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인도네시아의 구리 매장량은 2,400만 메트릭 톤으로 추정된다. 세계 최대 구리 매장량을 보유한 국가는 칠레(1억 9천만 메트릭 톤)이며, 이어 페루(1억 2천만 메트릭 톤)이다.

인도네시아는 지난해 84만 톤의 구리를 생산했으며, 정제된 구리 생산량은 20만 톤 규모이다.

인니, 전기차량 시대 가속화… 2030년까지 1,500만 대 도입 목표

인도네시아가 전기차량 시대로 빠르게 전환하고 있다고 9월 19일 현지 언론이 보도했다.

인도네시아 정부는 2030년까지 2륜차를 포함한 1,500만 대의 전기 차량 도입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는 탄소배출을 줄이고 에너지 안보를 강화하려는 정부의 광범위한 노력의 일환이다. 라흐맛 까이무딘 해양투자조정장관 산하 인프라 투자 담당 차관은 이 같은 목표가 인도네시아의 넷-제로(Net-Zero) 달성을 위한 핵심 전략이라고 강조했다. 구체적으로는 2030년까지 전기 오토바이 1,300만 대와 전기 자동차 200만 대가 도입될 예정이다.

그는 “인도네시아는 경제 성장을 촉진하고 에너지 안보를 강화할 수 있는 기회를 전기 차량의 전환을 통해 실현하고 있으며, 이는 지속 가능한 발전을 하는 데 일익을 담당할 것”이라며 “전기

차량이 탄소배출 감소에 기여할 뿐만 아니라 새로운 경제적 기회를 창출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아이르랑가 하르파르토 경제조정장관은 정부가 전기 차량의 보급을 가속화하기 위해 세금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등 다양한 계획을 시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실제로 올해 1월에서 7월 사이 전기 자동차 판매는 작년 같은 기간에 비해 두 배 이상 증가해 18,000대를 기록했다.

아이르랑가는 “전기 자동차의 기술과 관련, 배터리 효율을 높이고 충전 인프라를 확대하고 있다”며 “정부가 저렴한 전기 자동차의 공급과 혜택 등을 소비자에게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도네시아의 전기 차량의 시장은 아직 초기 단계에 있다. 현재 전국적으로 운행 중인 전기 오토바이, 자동차, 버스, 트럭은 약 15만 대에 불과하다.

<정치, 사회>

조코위-SBY, 비공개 회담… “프라보워 지지 선언”

조코 위도도(조코위) 대통령과 수실로 밤방 유도요노 전 대통령이 지난 21일 비공개 회담을 가진 후, 프라보워 수비안토 당선인의 새 정부를 전폭적으로 지지하기로 합의했다고 발표했다.

조코위 대통령은 유도요노 민주당 총재와 이날 자카르타 대통령궁에서 30분간의 비공개 회담을 마친 후, 본인과 유도요노 전 대통령이 프라보워 수비안토 새 정부를 전폭적으로 지원하기로 합의했다고 강조했다.

회담 후 두 지도자는 머르데카궁 즈빠라룸서 대화를 나누었으며, 유도요노 총재가 말라리아 퇴치를 위한 글로벌 연합의 특별고문으로 임명된 것과 관련해 역할 분담에 대해 조코위 대통령과 논의했

다고 밝혔다.

유도요노 총재의 민주당은 지난 2월 대선에서 프라보워 수비안토와 조코위의 장남인 기브란 라카부밍 라카 부통령 당선인을 지지한 바 있다. 또한 유도요노의 아들 아구스 하리무르띠는 조코위 정부에서 공간계획장관으로 임명되었다.

조코위와의 회담에 앞서 유도요노 총재는 자신의 보고르 사저에서 자카르타 주지사 후보인 투쟁민주당(PDIP)의 뿌라모노 아농과 그의 러닝메이트 라노 까르노와 만났다.

뿌라모노는 자카르타 지역 발전을 위해 다양한 주요 인사들과 관계를 구축하고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만났다고 밝혔다.

근무 형태와 오피스 문화 변화에 따른 유연한 사무 공간 설계

미래의 사무실은 관계와 아이디어 교류의 중심으로 변모해야

2024년 현재, 사무 공간과 사무실 문화는 하이브리드 근무가 일반화되며 큰 변화를 겪고 있다. 많은 회사와 기관, 단체들이 사무실로 복귀하고 있지만, 여전히 원격 근무와 사무실 근무를 결합한 형태가 주류를 이루고 있다.

사무실에서의 근무는 여전히 대면 소통과 협업을 통해 생산성과 성장을 촉진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사무실 내에서 즉각적인 피드백과 상호 작용이 이루어지며, 네트워킹과 아이디어 교류의 기회가 자연스럽게 제공된다.

반면, 원격 근무는 유연한 근무 시간을 제공하고 통근의 스트레스를 줄이는 장점을 가지고 있지만, 가정 환경에 따라 생산성이 영향을 받을 수 있다. 특히, 많은 원격 근무자들은 일과 삶의 경계가 흐려지는 어려움을 겪고 있다.

부동산 자문 회사 콜리어스는 팬데믹 이후 원격 근무가 보편화되었지만 사무실은 여전히 인간의 본질적인 사회적 욕구를 충족하는 중요한 공간으로 남아있다고, 지난 9월 17일 배포한 “오피스 현황과 문화: 사무공간의 변화”라는 제목의 보고서에 강조했다.

사무 공간은 1980년대부터 꾸준히 변화해 왔다. 1980년대에는 칸막이로 구분된 좁은 공간에서 대형 PC와 팩스를 사용하며 업무를 처리했다.

1990년대에는 ‘U자형’ 책상이 등장했으며, PC와 전화기가 책상 위를 채웠다. 2000년대 들어서에는 스타트업 문화가 확산되면서 넓은 공동 공간과 자유로운 좌석 배치가 등장했고, 노트북과 스마트폰의 사용이 일반화되었다.

2010년대에는 협업을 위한 브레이크아웃룸과 서서 일할 수 있는 책상, 건강을 고려한 디자인이 도입되며, 사무실은 단순한 업무 공간을 넘어 직원

들의 참여와 팀워크를 촉진하는 장소로 변화했다. 2020년대에는 하이브리드 근무 모델에 맞춰 모듈형 가구와 적응 가능한 공간이 주를 이루고, 재생 가능 에너지와 지속 가능성을 고려한 설계가 도입되었다.

콜리어스는 앞으로의 사무 공간은 더 유연하고 적응력 있는 형태로 진화할 필요가 있고, 기업들은 직원들의 다양한 요구를 반영해, 협업과 집중 작업을 모두 지원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한, 지속 가능한 설계와 친환경 소재를 사용해 장기적인 성장을 지원하는 환경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 기술 통합 또한 중요한 요소로, 사무실 내에서 원격 협업을 쉽게 할 수 있는 도구와 시스템이 구축되어야 한다.

콜리어스는 사무실과 원격 근무의 조화가 중요한 시대가 되었다며, 미래의 사무실은 단순히 일하는 공간을 넘어, 직원들의 웰빙과 생산성을 높이는 중요한 자산으로 자리잡을 것으로 전망했다.

데일리
인도네시아

— 여기가 맛집! —

Baliren Restoran

황지영 (자카르타 거주)



여러분, 안녕하세요. 완전한 가을 10월이 찾아왔네요. 여러분, 한국이든, 인니든 외롭지 않게 추석 잘 보내셨나요? 저는 추석에 잠시 한국에 왔습니다. 더위를 피해 선선한 가을 찾아왔더니 올해는 한국 추석 무더위가 엄청났답니다. 항상 추석에 긴 팔을 입고 있었던 것 같은데, 이렇게 반팔을 입고도 땀을 뻘뻘 흘리는 추석은 처음이라 당황스러웠는데요. 지구온난화의 심각성을 한 번 더 몸소 느꼈답니다. 그래도 추석이 딱 끝나자마자 며칠 비가 시원하게 내리더니 쌀쌀한 가을이 되었어요. 하루아침에 갑자기 바뀌어 버린 날씨가 아쉽고 미련 뚝뚝 있었지만 그래도 무더위보다는 훨씬 나은 것 같습니다. 저희는 또 인니에 가서 여름을 느낄 수 있으니깐요. 한국은 벌써 노랑고 빨간 단풍들로 알록달록 해졌어요. 연말을 향해 달려가느라 바쁜 10월이시겠지만, 우리 마음속 근심, 걱정은 잠시 내려놓고 가을 단풍처럼 아름다운 색상으로 채워지는 의미 있는 한 달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 사람들과 맛있는 음식 먹으며 맥주 한잔할 수 있는 중국식 양 꼬치 가게를 가지고 와봤습니다.



PIK에 있는 Baliren이라는 곳인데요. 둥근 식탁에 둘러앉을 수 있는 룸도 여러 개 있고, 무엇보다 깔끔해서 좋습니다. 꼬치를 내놓을 때 따뜻한 화로에 주어서 오랫동안 말하면서 천천히 술안주로 먹어도 따뜻해서 좋았습니다. 꼬치류 뿐만 아니라 전통 중국요리들도 여러 종류가 있으니 선택의 폭도 아주 넓습니다. 맛도 중국 본토 맛과 견주어도 손색이 없을 정도라서 전통 중국요리를 경험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럼 메뉴 소개 들어가겠습니다.

첫 번째로 소개 드릴 요리는 꼬치류 들입니다. Signiture Lamb Skewers (15,000루피아 ++), Grilled Pork Belly (13,000 루피아 ++), Roasted Leeks (18,000 루피아 ++) 등등. 일단 고기 치킨, 돼지, 소 여러 종류의 고기들이 다 있으니 취향대로 주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보통 양 꼬치, 삼겹살 이렇게 시키는 것 같은데요. 제일 무난하고 먹기 편리한 것 같습니다. 야채와 버섯류도 있는데요. 야채는 보통 부추 또는 배추, 팽이버섯 이렇게 많이 시키는 것 같아요. 그리고 추천드리자면, 몇 년 전부터 중국에서 옥수수 꼬치를 통으로가 아닌 옥수수 한 알 한 알을 꽃아서 양념해서 굽는 귀여운 방식이 있는데요. 한 알 한 알 꽃아서 그런지 가성비 면에서는 별로지만 은근 술안주로 배부르지도 않고 주워기 좋아서 중국유행에 탑승하고 싶으시다, 또는 비주얼이 궁금하시다면 한번 시켜보세요.

두 번째로 소개 드릴 요리는 Grilled Eggplant (38,000 루피아 ++)입니다. 저는 이 요리를 중국식 꼬치집 제일 킵이라고 생각하는데요. 한국에서는 파는 곳을 못 봤는데, 중국 꼬치집 가면 무조건 있는 요리입니다. 가지 위에 마늘과 얇은 당면을 올려서 구운 요리입니다. 사실 저는 고등학생때 까지만 해도 가지의 식감이 싫은, 가지 편식자였는데요. 중국 가서 여러 가지 가지 요리를 먹어보면서 가지의 맛에 눈을 뜨게 되었습니다. 이 요리도 그 요리들 중 하나인데요. 일단 마늘 맛을 너무 사랑하는 한국인들은 절대 싫어할 수가 없는 맛입니다. 이 요리는 꼭 드셔보세요.

세 번째로 소개 드릴 요리는 Steam Scallops with Garlic and Vermice (45,000 루피아 ++), Grilled Oyster (30,000 루피아 ++)입니다. 이 요리 또한 마늘맛 좋아하는 한국인들이 너무 만족할 만한 요리인데요. 가리비 관자와 굴 위에 다진 마늘과 얇은 당면을 올려 구워 낸 요리입니다. 가리비와 굴의 달달함과 마늘의 알싸하고 고소함이 너무 잘 어우러져 이 맛이 영원히 끝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생각할 만큼 삼키기 아쉬웠습니다. 얇은 당면에 소스가 적절히 잘 베여서 이 또한 짭조름하고 별미였습니다. 사실 소스는 위의 가지 요리와 비슷한데요. 이 요리 또한 중국 양 꼬치집에서 자주 볼 수 있는 요리입니다. 안주로도 추천하니 꼭 드셔 보세요.



마지막으로 소개해 드릴 요리는 Spicy Crawfish (388,000루피아++)입니다. 혹시 마라룡샤를 들어 보신 적이 있나요? 그럼 영화 범죄 도시에서 장첸이 새우 같은 것을 까 먹는 장면을 보신 적이 있나요? 민물 가재를 사천식 매운 마라 소스에 볶아낸 음식인데요. 저는 새우, 게 같은 갑각류를 너무 좋아해서 중국에 살 때부터 자주 먹었는데요. 사실 노동에 비해서 살이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새우와 비슷한 듯 다른 그 오동통한 식감과 고소함 때문에 계속 찾게 되는 것 같습니다. 맛은 미니 랍스터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마라 소스 자체가 호불호가 갈리지만 좋아하시는 분들은 극호이시니 마라 소스와 랍스터 맛이 없을 수가 없지 않나요? 혀가 얼얼하고 매울 때는 시원한 맥주 한모금과도 아주 잘 어울립니다. 너무 맛있어서 영원히 비닐장갑을 벗고 싶지 않았어요. 이 요리도 꼭 드셔 보세요.

2024년도 이제 3개월 밖에 남지 않았네요. 이어달리기에서도 마지막 계주가 가장 중요하잖아요. 남은 시간 동안 그동안 계획하셨던 모든 일들 다 성취하시는 의미 있는 한 달 되시기 바랍니다. 그럼 저는 11월에 더 맛있는 맛집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식당 정보 : <Baliren restoran>

음식 종류: 중식

가격대: Rp 300,000-500,000 /2인 기준

영업시간: 월~일 오전 11:00- 오전 02:00

주소: Ruko Golf Island Blok D 50 51 52

Jln Pantai Indah Kapuk PIK RW/4,
Pantjoran 1 PIK 2, Kec. Penjaringan,
DKI Jakarta 14440

※ Google 참고



가을날 기행



바람이 좋아
가을 들꽃이 좋아
얼굴 붉히는 잎새들의 서걱거림이 좋아
추적거리는 비를 맞으며
쏘다니다 돌아오는 길에
싸늘해진 양손 어깁죽지에 묻으며
그렇게 나를 맞이해 줄 당신을 생각하면
나도 붉어 갑니다

이미지: 무창포에서 by Dr, Seo

글: 임주경(한국문협 인니지부회원)



디포네고로 왕자와 자바전쟁

지난 호에 이어

사실상 자바전쟁은 1813년 술탄 하명꾸부위노 3세가 화병으로 사망할 때 태동하여 그로부터 10년 후인 1823년 술탄 하명꾸부위노 4세가 독살되던 시기에 이미 불붙고 있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디포네고로 왕자는 뜨갈레조에서 스스로의 생각을 정리해 사상과 정치, 국가, 문화, 군사전략과 세부 행동에 대한 기초를 완성했습니다. 하명꾸부위노 4세 입주자룻이 처참하게 유명을 달리한 후 세 살짜리 술탄이 즉위해 족자 술탄국이 실질적 지도자 없이 표류할 때 지난 십 수년간 끄라톤에서의 활동을 통해 분명한 자리매김을 한 디포네고로 왕자를 유일한 희망이자 진정한 지도자로 여긴 백성들과 이슬람 지도자들, 귀족들이 속속모여 들었던 것이죠. 뜨갈레조는 자바를 떠돌며 포교활동을 하던 이슬람 학자들과의 부단한 서신교환을 통해 자연스럽게 자바 전역과 연대하고 소통하는 네트워크의 중심지이기도 했습니다.

그러한 소통을 통해 그는 자바 전역의 지역사회를 분석하고 지지기반으로 삼았는데 군대를 구성할 때에도 각 지역별 특성을 전투능력의 데이터로 사용했습니다. 그는 이런 말을 하기도 했거든요.

“마디운(Madiun) 사람들을 첫 번째 공세를 막

아내는 데에 훌륭한 능력은 발휘하지만 그 후로는 큰 도움이 되지 않소. 빠장(Pajang) 사람들은 용맹스럽기 그지없지만 역시 오래 버티기엔 능하지 않아요. 바글렌(Bagelen) 사람들은 자기 지역에서 전투가 벌어질 경우 가장 요긴한 전력이 될 것이요. 하지만 타 지역 전투에 투입된다면 쉽게 전열이 무너질 것입니다. 그런데 마타람 사람들은 이 모든 면에서 뛰어나다오. 그들은 강고히 적과 맞설 수 있고 전투의 우선순위를 알 뿐 아니라 전쟁이 필연적으로 가져올 처참한 파국조차 초연히 견뎌낼 수 있소.”

뿐만 아니라 그는 은밀하게 정보망을 구축해 활용했는데 이는 자바 전쟁을 수행하면서 적의 동향을 파악하는 데에 오랫동안 큰 도움을 주었습니다. 그는 네덜란드 지방총독과 부지사들은 물론 그들과 손잡은 끄라톤 왕궁의 움직임을 파악하기 위해 궁전뿐만 아니라 다누레조 재상, 지방총독(주지사), 지방총독의 비서, 각 지방의 지방총독 보좌관(부지사), 네덜란드 식민정부 관료들 및 그들과 가까이 지내는 귀족들, 이슬람국가 건설에 대해 반대입장에 있는 사람들 집안에 하인이나 마구간지기 등을 포섭하거나 첩자를 들여보내 비밀리에 정보를 수집했던 것입니다.



당시 전투가 벌어졌던 지역들
<http://www.sekelumitpandang.com>

그가 하명꾸부위노 4세의 죽음을 통지받기 전에 미리 알고 끄라톤으로 달려갔던 것도 그런 정보망이 작동했던 것입니다.

그는 백성들을 동원해 1825년 중반까지 쌀을 대량으로 구매해 군량미로 비축하기도 했으니 비밀리에 전쟁을 대비한 것은 분명한 일입니다. 그의 아버지 하명꾸부위노 3세가 1813년 승하한 이후 12년이란 짧지 않은 기간동안 디포네고로 왕자가 지역적 기반을 공고히 다지며 용의주도하게 사회적, 군사적 역량을 키워오던 중 마침 말뚝 사건이 벌어졌던 것입니다. 그러니 그것이 자바 전쟁으로 비화된 것은 절대 우연이 아닙니다. 디포네고로 왕자가 드디어 숙청의 빌미가 될 미끼를 물었다고 다누레조 재상과 네덜란드 총독부가 채재를 부르던 그 순간 정작 디포네고로 왕자 자신은 자바땅을 되찾아 이슬람국가를 세우기 위해 그동안 준비한 모든 역량을 동원할 시기가 드디어 온 것이라 생각했던 것입니다. (제4장 끝)

제5장 불타오르는 자바

“우리들의 전략적 목적은 이 땅에서 네덜란드인들과 중국인들을 완전히 몰아내고 왕국을 우리 손으로 되찾아 온전히 지배하는 것입니다.”

고아슬라롱에 마련된 본진 사령부 막사에서 망꾸부미 왕자와 끼아이 모조를 비롯해 왕족, 귀족들로 구성된 지휘관들에게 디포네고로 왕자는 이 저항전쟁의 목적을 분명히 했습니다. 침략자인 네덜란드뿐 아니라 오랜 기간 동인도에 뿌리를 내리고 살아온 중국인(화교)까지 몰아내야 할 이민족으로 규정한 것은 그들이 정부의 세금징수업무를 위임받아 위세를 부렸고 총독부나 네덜란드 개인 사업자들의 하수인으로서 자바 백성들 위에서 대체로 군림하며 호가호의하고 있다는 이유가 컸습니다. 디포네고로 왕자는 1812년 아버지 하명꾸부위노 3세의 두 번째 즉위식에서 영국군에게 협조하여 끄라톤 함락에 일조한 공으로 뚜먼궁의 작위를 하사받고 나요코(Nayoko)의 영주가 된 현지 중국인 사회 우두머리 판진싱(Tan Jin Sing)이 희희낙락하던 모습을 잊을 수 없었습니다. 결과적으로 그는 하명꾸부위노 2세를 폐위시켜 유배보낸 공로자 중 한 명으로서 그 아들인 하명꾸부위노 3세에게 표창과 포상을 받은 것입니다. 디포네고로 왕자는 그날 아버지의 얼굴에 나타났던 치욕적인 표정을 마치 조금 전에 벌어진 일처럼 생생하게 기억했습니다. 디포네고로 왕자에게 자바땅의 중국인들은 판진싱으로 대변되는 반역자들이란 인상이 강했던 것입니다.



자바전쟁 삽화

“그러기 위해선 단계적인 전술목표들을 수립할 필요가 있습니다.”

가장 효과가 큰 목표는 왕국을 상징하는 족자의 끄라톤 궁전을 탈취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왕궁 경비대는 물론 네덜란드군이 철통같이 지키는 그곳을 치려면 우선 지역적 반란을 일으켜 각 지역의 끄라톤 옹호세력들이 끄라톤을 지원하지 못하도록 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디포네고로 왕자는 끄라톤을 고립시키고 유럽인들과 중국인들을 공격하라는 명령을 꺼두(Kedu), 바글런(Bagelen), 반유마스(Banyumas), 세랑(Se-rang), 몬쥬네고로(Monconegoro) 동부지역 등 술탄국 전역의 영주들과 수라카르타 수난국 경계의 영주들에게도 전달했습니다. 그 명령서에는 그들을 디포네고로군의 지휘관으로 삼는다는 임명장도 동봉되어 있었습니다.

“이 인간은 자기가 술탄이라도 된다고 생각하는 거야?”

그들 중엔 아직 디포네고로 왕자와 일면식도 없이 네덜란드와 이익을 공유하는 이들도 있었으므로 이렇게 반응하며 거절한 영주들도 있었으나 상당수의 영주들이 그 명령과 임명장을 수용하고 디

포네고로군에 합류했습니다. 디포네고로 왕자는 이렇게 확보된 조직을 토대로 술탄국 전체를 몇 개의 전역(戰域)으로 나누고 각 지역사령관과 부대장들, 몇몇 보좌관들도 임명하는 등 조직을 만들어 갔습니다.

“우리 군대는 족자 술탄국의 편제나 네덜란드군의 모델을 따르지 않을 것이요. 우리 강성함을 세상에 떨쳤던 오스만 투르크의 군대 편제를 따를 것이요.”

16세기 오스만 투르크의 칼리파 부대 자니스리(Janissari) 조직이 당시 디포네고로군에 적합하다고 본 것은 이슬람의 기치를 세운 그에게 어찌면 자연스러운 것이었지만 또 한편으로는 3세기 전 소아시아에 있던 한 국가의 군대편제를 꿰고 있던 것에서 그의 학식의 깊이와 독서량을 가늠할 수 있습니다. 그리하여 사단장 급인 알리 파샤(Ali Pasha)가 디포네고로 군에서는 알리바사(Alibasah)로, 여단장 급인 파샤(Pasha)는 바사(Basah)로 불렸습니다. 한편 대대장급은 아가둘라(Agadulah)를 본따 둘라(dulah)라 했고 중대장은 세(Seh)라 칭했습니다.

디포네고로군은 족자 끄라톤 장악을 기정사실로



Gambar 7. Salah seorang pemimpin masyarakat Jawa dengan pakaian perangnya

Gambar 5. Penduduk Jawa kelas bawah

전투복을 입은 자바인(좌), 하층 자바인 복장(우)

<https://m.kiblat.net>

여기고 끄라톤 호위부대로서 만띠레조 부대(Pasukan Mantirejo), 땡 부대(Pasukan Daeng), 뉴트로 부대(Pasukan Nyutro), 만둥 부대(Pasukan Mandung), 끄땅궁 부대(Pasukan Ketanggung), 까노만 부대(Pasukan Kanoman) 등을 창설했습니다. 이외에도 각각의 부대는 오스만 투르크 군편제에 따라 뚜르끼야(Turkiya), 아르끼야(Arkiya) 같은 터키식 명칭이 붙었고 오스만 투르크 정예부대인 불키요(Bulkiyo)라는 명칭이 붙은 부대도 있었습니다.

한편 병사들에게는 총포를 비롯한 무기 일체와 함께 숲속 화약공장에서 직접 만든 탄약들도 지급되었습니다. 디포네고로군은 반군답지 않은 매우 훌륭한 병참 시스템을 갖춰 병사들의 무장상태가 우수했는데 그것은 오랜 기간의 사전준비를 반증하는 것이기도 했습니다. 디포네고로 왕자는 적대 세력의 귀족들과 자신을 돕는 귀족들의 명단을 각각 작성해 지휘관들에게 배포했는데 그 블랙리스트와 화이트리스트를 통해 이제 누구와 손잡고 누구를 상대로 싸워야 할지 분명해진 것입니다.

슬라롱에서 디포네고로는 지휘관급 왕족과 귀족들에게 임무를 나누어주었습니다. 디포네고로 왕자의 아들 아놈 왕자(Pangeran Diponegoro

Anom), 뚜명궁 다누꾸수마(Tumenggung Danukusuma)는 바글렌(Bagelen)지역을, 아디위노노 왕자(Pangeran Adiwino)와 망운디뿌로 왕자(Pangeran Mangundipuro)는 꺼두(Kedu)지역 일대를, 아부바까르 왕자(Pangeran Abu Bakar)와 뚜명궁 자야 무스토포(Tumenggung Jaya Mustopo)는 로와노(Lowano)지역을, 아디수르야 왕자(Pangeran Adisurya)와 수모네고로 왕자(Pangeran Sumonegoro)는 끌론 뿌로고(Kulon Progo)를, 뚜명궁 쏘끄로네고로(Tumenggung Cokronegoro)에게는 고데안(Godean)의 방어를 맡았습니다. 또한 조요꾸수모 왕자(Pangeran Joyokusumo-베이 왕자(Pangeran Bei)라는 명칭으로 더 많이 불림)가 뚜명궁 수라딜로고(Tumenggung Suradilogo)의 도움을 받아 족자 북방을, 뚜명궁 수르요네고로(Tumenggung Suryonegoro)와 뚜명궁 수로네고로(Tumenggung Suronegoro)는 족자 동편을, 슬라롱을 방어하는 조요네고로 왕자(Pangeran Joyonegoro)와 수르요디닝랏 왕자(pangeran Suryodiningrat), 조요위노토 왕자(Pangeran Joyowinoto)에게는 족자 남쪽 방면을 맡겼고요. 구눙 키둘(Gunung Kidul)은 싱오사리 왕자(Pangeran Singosari)와 와라꾸수모 왕자(Pangeran Warakusumo)에게, 빠장(Pajang)지역은 머르톨로요 왕자(Pangeran Mertoloyo), 위르요꾸수모 왕자(Pangeran Wiryokusumo), 뚜명궁 신두레조(Tumenggung Sindurejo) 및 디포레조 왕자(Pangeran Diporejo)에게, 수가와티는 까르토느가라 군수에게, 마디운, 마게탄, 끄디리 등은 망운느가라 군수(Bupati Mangunegara)에게 위임되었습니다. 디포네고로군의 군세는 족자 술탄국, 수라카르타 수난국, 망꾸느가라안 봉국 그리고 빠꾸알라만 봉국 군대를 모두 합친 것의 세 배를 넘어서고 있었습니다. 이제 디포네고로 왕자는 본격적으로 네덜란드와 싸울 준비를 갖춘 것입니다.

한방

지난 호에 이어

생활 한의학2

●오행의 성질

목- 뻗어 나가는 성질, 새싹, 아이같은 천진난만, 꺾이지 않음, 성장의 기운

화- 확산하고 발산하려는 성질, 친화적, 예를 갖추, 활동성

토- 중화하려는 성질(다른 성질들을 하나로 아우른다), 중계자, 흡수하고 배출이 어렵다

금- 통제, 절제하려는 성질, 카리스마, 과감함, 엄숙함, 냉정함

수- 블랙홀처럼 끌어당기고 뭉치려는 성질, 차갑고 무겁다, 냉철함, 지략, 지혜, 어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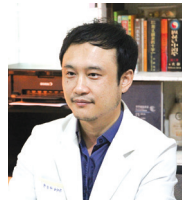
오행 또한 음양과 마찬가지로 지구상에서 벌어지는 모든 현상들과 인간사에 연관되어 작동되고 있습니다.

●오행의 속성

예시1) 타이어 교체하는 가업을 아버지께 물려받은 한 청년이 있습니다. 타이어 생산하는 공장이 매물로 나왔다는 소식을 지인으로부터 전해 듣고, 인수해 보라는 제안을 받았습니다.

평소 사업을 키워보고 싶은 마음이 컸 던 터라 조건을 알아보고 바로 계약을 했습니다.(목 기운) 사업은 날로 번창해 갔고 직원들이 늘어나면서 공장을 확장이전 해보고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화 기운)

공장의 규모가 늘어나고 직원 수도 많아지다 보니 신경 써야 할 일들이 많아졌습니다. 노사관계, 직원복지, 연봉협상, 직원채용, 보수유지, 설비확충 등등 직원들의 협력이 절실했습니다. 직원들과의 원활한 소통을 위해 계획대로 일처리를 했고, 직원들의 의견을 검토하고 수용하여 합의점을 도출하여 경영해 나갔습니다.(토 기운)



글: 미르한의원 원장 서상영

이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불만을 갖거나 비협조적인 직원들이 있었는데, 경고를 통해 몇 번의 기회를 주었음에도, 회사에 부정적 영향을 끼치는 직원들은 과감히 정리하여 남아있는 직원들이 원활히 근무할 수 있도록 원리원칙을 고수해 나갔습니다.(금 기운)
몇 년의 세월을 거치며 여러 어려움에 봉착했지만 직원들의 협조와 냉철한 판단력으로 위기를 극복하여 튼튼한 중소기업으로 자리매김하였고(수 기운) 이제는 대기업으로 도약하기 위해 미래 계획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예시2) 생명이 잉태되고 성장하고 유지하기 위해서는 햇빛과 물 그리고 공기, 땅, 영양분이 필수적으로 필요합니다. 식물은 씨앗이 땅에 깃들여(토) 햇빛에 의해 기화된(화) 물이 구름으로 만들어져 비가 내리면(수) 식물의 뿌리에 수분을 공급하여 싹을 틔워 성장(목)하고, 햇빛은 광합성 작용을 일으키고, 다시 물을 증발시켜 구름을 형성해 비가 되어 식물에 수분을 공급하기를 반복하며 식물은 성장하고 소멸되는, 자연계 현상이 유지됩니다. 이때 물의 원천이자 땅의 영양분 생성을 하는 것이 (금)입니다.

예시3) 쇳덩어리를 화로에 녹여(화) 틀에(금) 넣고 물로 식혀서(수) 검(토)을 만듭니다. 기필코 돌도 자르는 예리한 칼날을 가진 훌륭한 검을 만들겠다는 뜻과 목표를 세우는 행위는 목 기운이 됩니다. 뜨거운 화로에 넣어서 변형시켜 새로운 모습으로 만드는 것은 화 기운입니다. 망치로 두드리고 화로에 넣었다가 또 두드리고 물에 넣기를 반복적으로 묵묵히 해나가는 것은 토 기운입니다. 남들이 불가능하다고 해도 어려운 역경이 있어도 뜻을 지키며 훌륭한 검을 만들어 내겠다는 의지는 금 기운입니다. 그 속에서 노하우를 얻어내고 새로운 방법들을 고안하고 연구해서 발전시켜 나가는 것은 수 기운입니다.

예시4) 인간의 새 생명은 정자와 난자가 만나 합성함으로써 시작됩니다.(음양결합)
그리고 자궁에 자리 잡고 영양분을 공급받으며 조금씩 성장하기 시작합니다.(목의 작용-성장) 세포가 자라나면서 세포분열을 함으로써, 여러 다른 조직들이 생겨나게 됩니다.(화의 작용-확산) 왕성한 세포분열로 덩치가 커지고 여러 기관들이 성숙하는 과정 속에 적절한 속

도조절을 하게 됩니다. 이는 무한대로 세포분열이 일어나게 되면 생명체의 크기는 엄마의 배를 뚫고 나올 정도로 성장해버리고 결국 스스로 그 크기를 감당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금의 작용-절제)

[거인증: 성장호르몬이 과도하게 분비되어 신장과 몸집이 비정상적으로 크게 자라는 병. 인체 기능의 조절과 통제, 즉 금의 작용이 제대로 작동되지 않아 생기는 질병입니다]

엄마 배속에서 충분히 성장한 생명체는 세상에 나오기 위해 장기들은 성숙해지고, 기능들은 활성화 되면서 출산 준비를 마치게 됩니다.(수의 작용-수렴, 완성)

이때 목, 화, 금, 수의 작용들이 원활히 작동하도록 조율하고 연결하는 작용들을 통틀어 토의 작용(중화-균형)이라고 합니다.

●오행의 직업적 특성

목이 발달한 사람: 좋게 말해 추진력이 좋음. 뭐든 벌리기를 잘하지만 수습이 안 되어 옆에서 마무리 해줄 사람이 필요함. 신중함이 부족하고 충동적임. 용두사미격

화가 발달한 사람: 크게 두 부류로 나뉨.

첫 번째 유형-매출보다 자신의 기술이나 작품성, 보여 지는 품위가 중요.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인정받는 걸 중시. 돈보다 명예가 중요한 타입

두 번째 유형- 일명 프랜차이즈 타입. 모든 하나로 만족 하지 못하고 여러 개를 만들어 곳곳에 뿌리는 것을 좋아함. 확장과 확산으로 이익의 극대화를 중요시 여김.

토가 발달한 사람: 주위에서 봤을 때 우유부단한 성격으로 보임. 결단이 느리고 행동도 느리고 추진력이 떨어져 보이나 소처럼 우직하게 밀고 나가는 경향이 있음.

회사 내에 위와 아래를 잘 조율하고 사업자는 직원들과 잘 융화하는 타입

금이 발달한 사람: 강력한 추진력과 카리스마로 직원들을 압도하는 유형. 내 사전에 어중간 한 건 없다. 흑백사고를 가지고 있으며 분석적이고 냉정한 성향 때문에 적이 많은 타입. 결단력 판단력이 빨라, 업무처리가 좋으나 자신의 주장이 강하여 마찰이 잘 생기고 사람들과 융화가 어려움.

수가 발달한 사람: 숲(전체)와 나무(부분)를 보려는 지혜를 갖추고 신중함을 겸비하고 있음. 자신의 감정을 배제하고 객관적 입장에서 사물과 현상을 바라봄으로써 통찰력이 밝음. 생각과 계획은 넘쳐나지만, 행동으로 옮기는 것이 어려운 타입

●오행에 따른 반응

친구들과 패싸움이 붙었을때

목이 발달한 친구: 앞뒤 안 가리고 같이 싸움에 동참 합니다.

화가 발달한 친구: 자신과 무관한 일이라 생각하고 가만있거나, 때론 분위기에 휩싸여 싸움에 동참 합니다.

토가 발달한 친구: 중간에 끼어서 말리거나 겁이 나서 방관합니다.

금이 발달한 친구: 이 와중에 시시비비를 가리려 하고, 친구가 불리하다면 싸움에 동참합니다.

수가 발달한 친구: 우선 상황을 파악하고 대피를 해야 할지 아니면 신고를 해야 할지 판단부터 합니다.

소개팅 나갔을 때

목이 발달한 친구: 얼굴에 좋다 싫다가 드러나고, 마음에 들 경우 상대방이 부담될 정도로 관심을 보이고 질문을 하면서, 오버하는 경향이 나타나는 타입.

화가 발달한 친구: 기본 매너가 좋고, 자기의 장기를 드러내고 뽐내기를 좋아함. 춤이나 노래를 잘한다면 춤과 노래로 자신을 어필하여 상대방에게 호감을 얻는 타입.

나뿐만 아니라 다른 이성들에게도 골고루 잘해주는 타입이라 쉽게 오해받음.

토가 발달한 친구: 첫 만남에서 이성적 어필이 부족함. 만약 상대가 첫 만남이라 그렇겠지 생각하고, 몇 번 만나다 보면 이해심과 인내심 많은 진국인 경우가 많은 타입

금이 발달한 친구: 마음에 들던 안 들던 자신의 감정을 감추려고 함. 평소 시시비비를 가리는 습성 때문에 대화가 딱딱하게 흘러갈 수 있음. 생각과 다르게 상대방에게 무거운 느낌을 주어 연애가 힘든 타입. 그러나 이성이 자신을 이끌어 주는 스타일을 선호할 경우 오히려 매력으로 어필됨.

수가 발달한 친구: 상대가 좋아하고 싫어하는 것을 빠르게 파악해서 잘 맞춰주는 스타일. 말과 행동의 타이밍이 좋아서 이성들이 좋아하는 타입. 다른 오행에 비해 바람기가 가장 강하다는 특성이 있습니다.

●오행의 상생상극을 이용한 병의 치료

1.소화

-많은 업무로 인해 예민해진 직장인이 만성피로가 쌓였습니다.

그로 인해 더부룩함, 구역감, 잦은 체기 같은 증상이 생겼습니다.

한의학에서는 예민해진 상태 즉, 스트레스는 간(목기운)을 해한다고 봅니다. 간에 열이 쌓이면, 그 여파로 위장 기능을 망가트려 소화기능에 이상을 만들어 낸다는 이론입니다.(간이 비위 소화기관을 극하여 발생한 문제)

-**화가기**가 **약하여** 위장 기능을 돕지 못하면 소화흡수력이 떨어져 비실비실하고, 활력과 기운이 떨어져 보입니다.

-**수기(신장,콩팥)**가 **강해** 역으로 비위기능을 침범하면 입맛이 없고 배고픔을 잘 못 느끼며, 붓기가 발생하고, 몸이 무겁고 변비가 나타나고, 체중이 증가합니다.

-**토기(비,위장)**가 **약하면** 소화력이 떨어져 입이 짹고, 체력이 약하며, 또래 애들보다 체구가 작고, 일상생활에서 빨리 지치고 자주 피곤함을 느낍니다.

-토기가 약하여 금기(폐)를 생해주지 못할 때는, 자신감이 떨어져 보이고 연약하며, 허약체질로 잔병치레가 많습니다(면역기능 저하)

2.기침

목 기운(간)이 폐(금)를 역으로 극(침범)하면: 방안이 울릴 것같은 찌렁찌렁한 기침소리

화 기운이 폐를 극했을 때: 잦은 기침.

토 기운이 약해서 나오는 기침: 많은 가래, 콧물이 동반된 기침

폐 기운이 약해서 나오는 기침: 잔잔하고 얇은 콧물콧물(보통 병세가 오래되고 심할 때 나타남)

수 기운이 금 기운을 생해주지 못해 나타나는 기침: 새벽 1~3사이에 기침이 심해짐

●침과 한약치료

한의학의 기본치료 원리

음양: 부족하면 보하고 넘치면 사하여 음양의 균형을 이루어라

오행: 부족하면 나를 생하는 오행을 보하고, 넘치면 나를 극하는 오행을 사하라

(위의 오행 상생 상극표 참고)

예를 들어 간이 비위 소화기관을 극하여 발생한 식욕부진, 더부룩함, 구역감, 잦은 체기 같은 증상이 나타났을 경우

***침 치료:** 1) 간을 사하는 혈자리-태충 2) 비장과 위장을 돕는 혈자리- 음릉천, 족삼리, 합곡, 중완을 기본방으로 하고, 기타 증상에 따라 혈자리를 첨가하게 됩니다.

***한약치료:**

전통의학에 사용되는 한약재와 처방의 종류는 수 천종에 달할 만큼 다양합니다. 자신의 체질과 증상에 맞게 처방 되었을 때 올바른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소음인의 간극비위 증상에 향사육군자탕을 예로 들어 보겠습니다.

향사, 사인, 반하, 진피는 간의 정체되어있는 기운을 풀어주고, 위장의 습담을 제거하여 소화기능을 도우며, 백출, 복령, 대추, 생감, 감초는 위장의 기혈과 밸런스를 맞추어 위장이 편하도록 돕는 작용을 합니다.

외에도 소양인은 “소요산” “시호소간산” 태음인은 “평위산” “평진건비탕” 을 증상에 맞춰 처방할 수 있습니다.

韓方



우리가 기억해야 할 역사

조현빈 (역사탐방대원, JIKS 11)

이번 여름방학, 저는 인도네시아 암바라와 지역에서의 역사탐방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탐방은 단순한 견학이 아닌, 우리 민족의 아픈 역사를 몸소 체험하고 그 의미를 깊이 새기는 시간이었습니다. 평소 교과서로만 접하던 독립운동의 현장을 직접 방문하게 되어 설레기도 했지만, 막상 그곳에 서보니 그 감정은 묵직한 책임감으로 바뀌었습니다.



탐방 첫날, 암바라와 성에서 위안부 유적지를 마주했을 때 저는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슬픔과 고통을 느꼈습니다. 그곳은 이제 폐허처럼 보였지만, 분명 그 시절 수많은 조선인 소녀들이 겪었을 고통을 증언하는 중요한 공간이었습니다. 그곳에서 그들의 희생을 바로 기억하고, 우리 후대가 결코 잊어서는 안 된다는 책임감을 강하게 느꼈습니다. 위안부 피해자들이 겪었던 참상은 단순히 책 속의 내용이 아닌, 우리 민족의 살아 있는 역사의 일부분이라는 것을 절감하게 되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암바라와 철도 박물관과 수모위노에 위치한 고려독립청년당 결성지에서 저는 조국의 독립을 위해 몸 바친 수많은 독립운동가들의 발자취를 생생하게 느낄 수 있었습니다. 교과서에서 배웠던 그들의 투쟁과 희생은 이제 저에게 더욱 실감 나게 다가왔고, 그들의 용기와 결의가 얼마나 큰 의미를 가지는지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특히, 그들이 가졌던 뜨거운 애국심과 민족적 자긍심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중요한 교훈으로 남아있음을 깨닫게 해준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탐방 둘째 날에는 라왕 세우, 일명 ‘천개의 문’을 방문하게 되었는데, 이곳 역시 암바라와 지역

의 중요한 역사적 유산 중 하나였습니다. 독립운동과는 또 다른 측면의 역사를 담고 있었지만, 이곳을 거닐며 역사가 우리 일상 곳곳에 스며들어 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암바라와 지역 곳곳에 남겨진 역사의 흔적들은 우리에게 과거를 잊지 말고, 그것을 기억하며 미래를 향해 나아가야 한다는 교훈을 주고 있었습니다.

이번 탐방을 통해 저는 역사는 단순히 과거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현재에도 계속해서 영향을 미치고, 미래를 만들어가는 중요한 자산임을 깨달았습니다. 우리의 독립과 자유는 결코 당연하게 주어지지 않았으며, 수많은 사람들의 희생과 헌신으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러한 역사를 올바르게 기억하고, 후대에 전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중요한 책임이라는 사실을 가슴 깊이 새겼습니다.

이번 암바라와 역사탐방은 제게 단순한 여행 이상의 의미를 가진 소중한 경험이었습니다. 저는 이번 경험을 통해 더 깊이 있는 역사적 소양을 쌓고, 독립운동가들의 희생정신을 되새기며, 앞으로도 그들의 정신을 이어받아 사회에 기여하는 사람이 되고자 다짐했습니다. 역사 속에서 배운 교훈을 바탕으로 더 나은 미래를 위해 나아가는 것이 우리 세대의 과제임을 잊지 않겠습니다.



친구 부부의 자카르타 골프 여행

글: 손상현(‘자카르타의 아침’블로거)

지난 4월에, 자카르타에서 주재원으로 처음 만나 친해진 친구 부부가 골프 여행을 왔다. 우리는 코로나 시기를 자카르타에서 함께 보내며 물심양면으로 서로에게 큰 의지가 되었다. 가까운 이웃들 과도 대면 접촉이 어려운 시기에 같은 아파트에 살며 매일 함께 운동하고, 맛있는 음식을 서로 나누며 지낸 배려심 많은 부부였다.

지나고 보니 자카르타에서의 시간은 짧았지만, 우리는 인도네시아의 날씨를 신의 축복처럼 생각했고, 현지인들의 순수하고 착한 성품을 높이 평가했다. 자주 만나며 은퇴 후의 삶에 대해 이야기를 하게 되었고, 인생 2막을 이곳에서 시작하고 싶다는 속마음도 나누었다.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도 시간 날 때마다 자카르타에서 만나기로 했다. ^^

약 1주일간의 골프 일정은 마치 PGA 투어 대회라고 해도 좋을 만큼 빡빡했다. 1년 동안 기다린 달콤한 휴가를 단 한 시간도 허투루 쓸 시간이 없다는 결심이 듬뿍 담긴 계획이었다. 마음은 여전히 40대에 머물러 있지만, 이틀 동안의 골프와 하루의 휴식은 50대 중반을 넘긴 나에게는 국룰이라고 생각한다.

골프 일정은 친구 부부와 함께 가장 인상 깊었던 골프장을 투어 하는 것이었다. 그중 자고라위 골프장에서의 라운드는 서로 간의 관계를 더욱 돈독해진 만들었다. 개인적으로도 좋아하는 골프장이었고, 동반자, 날씨, 음식까지 모든 것이 완벽했던 하루였다.

Old-course 1번 홀

올드 코스의 오프닝은 정글 속 계곡을 건너 멀리 보이는 좁은 페어웨이로 티 샷을 해야 한다. 자카르타에 와서 처음 이곳에서 티 샷을 할 때는 ‘와~ 이런 골프장도 있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다. 티 샷이 어렵지만 세컨드 샷이 조금 더 어려웠고, 오르막 퍼트를 하면 다시 굴러 내려오는 그린에서의 플레이가 가장 어려웠다. 블루 티에서 보면 페어웨이는 훨씬 더 좁아 보인다. 이곳에서 한 번이라도 티 샷을 해본 골퍼라면 티 샷의 방향성에 대한 부담감이 크게 느끼게 되는데, 이를 극복하는 것이 올드 코스의 첫 번째 도전 관문이다.

우리는 자카르타에서 주재원으로 생활하며, 비록 어렵고 힘든 일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항상 자신감을 유지하려고 노력했다. 결과가 어떻든 시작할 때 자신감을 가지는 것이 중요하다는 생각을 항상 품고 있었다. 골프 코스가 아무리 어려워도 공을 잃는 것보다 자신감을 잃는 것이 더 큰 문제일 것이다. 어떤 시작이든 자신감을 가지고 시작하는 것이 최선이다. 우리는 자신감 뽐뽐 넘치는 티샷으로 라운드를 시작했다.

Old-course 7번 홀

우리는 6번 홀과 7번 홀 사이에 위치한 그늘집에 잠시 들러 빈땅 맥주로 뜨거워진 열기를 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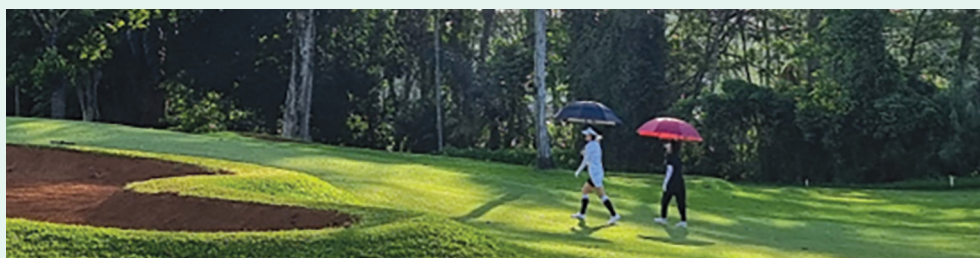


했다. ‘금강산도 식후경’ 이라고 하지 않았던가, 마음의 여유를 가질 때 자고라위 골프장의 아름다운 풍경이 눈에 더 많이 들어온다.

7번 홀에서는 세컨드 샷을 할 때 보이는 풍경이 아름답다. 비교적 전장이 짧은 편이지만, 그린 앞쪽에는 깊은 계곡이 있어서 드라이버, 우드, 유틸리티, 롱아이언 중에서 자신의 비거리에 맞는 클럽을 선택해야만 안전한 티 샷을 할 수 있다. 사진 속 큰 나무 앞의 평평한 페어웨이로 공을 보내면 약 100m 정도 남겨두기 때문에 좋은 스코어를 기대할 수 있다.

친구는 드라이버를, 나는 우드를 선택했다. 우리 모두가 기대했던 지점의 페어웨이에 공을 안착 시켰다. 비록 ‘마음먹은 대로 되지 않는 것이 골프’ 라고 하지만, 선택한 클럽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샷을 하면 실수를 줄이고, 가끔씩은 기대 이상의 결과를 얻을 수 있다. 역시 골프는 자신감의 게임이다!!

‘티 샷은 무조건 드라이버로 해야 한다’ 는 생각은 좋은 플레이를 할 수 없게 만들 수 있다. 친구는 나보다는 드라이버 비거리가 짧은 편이지만, 그는 샷을 하기 전에 항상 신중하게 고민하고 때론 조언을 구한다. ‘친구의 현명함은 스스로 질문하는 것에서 비롯되는 것이 아닐까’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Old-course 16번 홀

‘화무십일홍(花無十日紅), 권불십년(權不十年)’ 이라고 했다. 적도의 강렬한 태양 아래에서도 오후 3시가 지나면 그 열기가 한풀 꺾인다. 골프는 자신감의 게임이지만 겸손을 또 배우게 된다. 누군가는 겸손이 힘들다고 하지만 자신의 부족한 점을 알고, 겸허히 받아들이는 마음가짐이 필요하다.

열대 우림이 만들어 놓은 그늘을 따라 걷다 보면 간간히 불어오는 시원한 바람에 신의 축복을 받는 듯한 평온한 기분을 경험할 수 있다.

그러나 햇볕에 민감한 피부를 가진 사람이라면 항상 골프 우산을 준비하는 것이 좋다. 검은색 우산도 나쁘지 않지만, 연중 초록 초록한 잔디 위에서 사용할 계획이라면 어울리는 색상과 디자인을 선택하는 것이 사진을 더욱 아름답게 만든다.

Old-course 17번 홀

마지막 홀이 남았지만, 17번 홀 티잉 그라운드에서 16번 홀까지의 아쉬운 기억들이 더욱 선명하게 떠오른다. 겨우 두 홀 만 남겨두고 있는데, 이 홀에서 티 샷에 욕심이 생기는 것은 그 린까지 내리막길이고, 만회할 수 있는 기회가 이번 홀뿐이기 때문이다. 18번 홀은 모든 골퍼에게 도전적인 홀이다. 특히 이 홀에서는 티 샷을 더욱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왜냐하면 페어웨이 오른쪽이 모두 OB 구역이기 때문이다.

겸손하지 못하면 주어진 기회도 잡기 어려워진다. 우리는 이 홀에서 함께 OB의 경험을 했다. 홀아웃을 하며 아쉬운 마음에 뒤돌아 보니 그림 같은 풍경이 펼쳐져 있었다.

자고라위 골프 코스는 정글 속에 잘 가꾼 정원 같은 느낌을 준다. New-코스, Z-코스를 경험하면 이런 느낌이 더 강해지는데, 코스를 벗어나면 바로 열대 우림으로 이어져 있어, 코스 주변의 조경은 더욱 극적인 아름다움을 보여준다. 특히 이른 아침이나 늦은 오후에는 그런 아름다움이 더욱 돋보여, 휴대폰 카메라로도 충분히 멋진 사진을 찍을 수 있다.

친구 부부와 오랜만에 즐거운 골프 라운드를 가졌다. 스코어는 잊고, 마음껏 웃으며 이야기를 나눴다. 아얌 깔라산은 여전히 맛있었고, 함께 시원한 빈땅을 마시는 즐거움은 더 컸다. 코로나 시기에 함께 골프 라운드를 하며 마셨던 빈땅의 시원하고 달콤했던 맛이 생각났다.

약 25년 동안 회사 생활을 하며, 항상 멀리, 높이 있는 것만을 추구했지만, 회사를 그만두고 나서는 가까운 것들에 더 주목하게 되었다. 인생에서 진정으로 소중한 것들은 언제나 가까이 에 있음을 깨닫게 된 것이다. 그것은 바로 자주 만나고, 연락하며, 도움을 주고받는 가까이 에 있는 사람들이다. 우리 두부부는 그렇게 자카르타에서 함께 지냈다.

자카르타에서 함께 지내던 시절보다 연락이 줄어들긴 했지만, 여전히 우리는 서로 소통하고 있으며, 매년 한 번씩은 시간을 함께 보내고 있다. 내년에도 건강하게 자카르타에서 만날 친구 부부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하며...^^

***잠깐 자고라위 골프장에 대해 알아보자.**

자고라위 골프장을 이용했던 사람들의 의견은 매우 분분하다. 일부는 다른 골프장보다 더 습하고 덥다고 느끼며, 올드 코스의 잔디는 비교적 거칠고, 비가 오면 쉽게 그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또한 좁은 러프 지역이 바로 정글로 연결되어 공을 잃기 쉽고 찾기도 어렵다고 한다. 이 곳에서의 블루 티 플레이는 다른 골프장의 블랙 티 플레이와 비슷하다고 한다. 그린은 또 얼마나 빠른 지...

반면, 자고라위 골프장을 선호하는 이들은 자고라위의 명성이 클럽하우스 레스토랑의 ‘아얌 깔라산(Ayam Kalasan)’으로 시작한다고 말한다. 한 번이라도 이 음식을 맛본 사람이라면 금방 이해할 것이다. 심지어 자카르타 시내에서 이 음식을 먹기 위해 점심시간에 찾아오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고 한다.

또한, 자고라위 골프장은 Old, New, Z-코스 등 총 45홀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코스는 독특한 매력을 지니고 있어 다양한 재미와 긴장감을 준다. 경기 지연이 거의 없고, 섬세한 퍼팅 감각을 요구하는 빠른 그린과 주위 골프장에 비해 합리적인 평일 그린 피 가격도 매력적인 요소다. 특히, 주말 오전에는 회원들만 걷는 골프의 즐거움을 누릴 수 있다. 현재 한국인 회원이 가장 많은 골프장으로 알려져 있다.



제 105회 경남 전국체육대회 재인도네시아선수단 출정식



재인도네시아 대한체육회는 2024년 9월 27일, 주인도네시아한국대사관 강당에서 선수단출정식을 개최했다.

이번 2024년 제105회 전국체육대회는 경남 김해에서 10월 11일부터 10월 17일까지 펼쳐진다.

김종희 사무총장대행의 출정보고를 시작으로 김태화 수석부회장은 개회사에서 “아무런 사고 없이 기량을 맘껏 발휘할 수 있도록 관심을 보내는 한인사회에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대사관 박수덕 공사는 “모범적인 한인사회의 결속력으로 보여주는 체육회는 자랑스럽고 저력과 자부심을 느끼게 한다”고 격려했다.

박재한 한인회장은 “해마다 보는 이 빨간 물결이 멋지다. 우정과 화합으로 좋은 추억이 함께하

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소웅 단장 대행 한미헤 스퀘시 연맹회장은 선수단을 대표하여 “승전보를 전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포부를 밝혔다.

이어 선수대표 신준영, 전형래의 선서와 단기전달의 순으로 진행됐다.

10월 9일, 본부임원 33명, 경기임원 36명, 선수 54명, 참관 7명으로 구성된 130명은 축구, 볼링, 태권도, 테니스, 스퀘시, 골프, 탁구, 검도 8개 종목에 출전을 위해 한국으로 향할 예정이다.

2023년 104회 전국체육전에서 인도네시아선수단은 금메달 4개, 은메달 4개, 동메달 8개로 미국, 일본에 이어 종합 3위를 차지했다.



여백의 미, 정리

고아라(한국문협 인니지부 회원)

얼마 전 친한 지인이 주재 기간 종료로 한국으로 귀국했다. 거주 기간이 정해진 사람들이 들어오고 나가는 흐름에 조금은 익숙해졌지만, 여전히 헤어짐과 남겨짐은 받아들이기 어려웠다. 나는 이 만남이 선분의 끝이 아니라 끝없이 길게 이어지는 직선이라고 규정하며 애써 슬픔을 감추었다. 지인은 귀국 날씨가 다가올수록 더욱 바빠졌었다. 수개월 전부터 집 준비로 한국을 들락날락했었고, 큰 일들이 정리되고 난 뒤에는 각종 서류 등을 챙기느라 분주히 돌아다녔었다.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라고 했던가. 하루가 멀다고 처리해야 할 일들은 꼬리에 꼬리를 물고 지인을 찾아왔었다. 출국 날까지 힘들어했는데 마지막까지 처리되지 못한 채 치맛자락에 매달려 있던 일은 다름 아닌 살림살이 정리였다. 오히려 중요한 일들은 확실한 끝맺음이 있었다. 그런데 살림살이는 부지런히 비우고 버려도 떠나는 날까지 남아 있었다. 짐을 싸다 지쳐버린 지인은 이와 같은 명언을 남겼다.

“지금도 짐 싸기가 안 끝났어. 쓰레기 버리기도. 좀 쉬어가려고 다 같이 밥 먹으러 나왔어. 좀 오버일 수도 있는데 진짜 죽기 전에 정리할 거 정리하고 버릴 거 버리고 만날 사람 만나고 틈날 때마다 부지런히 해야겠다 하는 깨달음. 너무 후달려. ㅠㅠ”

이삿짐 정리를 하다가 신변 정리까지 떠올렸다는 지인의 말은 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고 아예 동지를 틀어 두고두고 존재감을 드러냈다. 경험에서 나온 그 깨달음은 묵직한 목소리를 내며 날 코너로 몰아세웠다. 아마도 쉽게 흘러들을 수 없었던 이유는 나 또한 집 구석구석에 살림살이들을 쌓아 놓았던 사실에서 자유로울 수 없었기 때문일 것이다. 정리란 나에게 있어 마음을 5조 5억 번을 먹어야 1번 가능한 일이었다. 정리의 필요성을 느끼면서도 계속 모른 척 왜 면해왔다. 급한 일이 아니란 이유로 늘 우선순위에 밀렸었고 오히려 소파에 누워 TV에 의미 없는 시선을 던지는 일이 늘 경쟁에서 이겼다. 그런 내게 지인의 말은 머릿속을 뒹뒹 맴돌며 정리라는 문제를 명확히 인지시켜 주었다. 그러나 난 겨우 출발선에 섰을 뿐 좀처럼 발을 떼기가 쉽지 않았다.

그러던 어느 날 유튜브에서 나를 움직이게 만든 영상을 마주하게 됐다. “풍수지리설에 따른 돈이 모이는 인테리어”라는 제목으로, 부자들은 어떻게 집을 인테리어하고 사는지 직접 방문해 보고 풍수지리 전문가 인터뷰도 함께 담은 영상이었다. 부자가 될 수 있다는 말에 현혹되어 들어간 영상 속 풍수지리 전문가의 한마디는 결정적으로 날 행동하게 만들었다.

[현관을 밝고 깔끔하게 유지해야 좋은 기운이 집으로 들어옵니다.]

우리 집 현관으로 말할 것 같으면 열역학 제2 법칙, “엔트로피의 증가”였다. 바닥에는 신발장에 들어가지 못한 신발들이 놓여있고, 한쪽 벽에는 먼지 덮인 아이 자전거, 쿼보드, 골프 클럽들이 세워져 있었다. 그 외 각종 물건들이 어지러이 콘솔 위를 차지하고 있었다. 한때는 호텔 로비 같은 현관을 꿈꿨었다. 발품을 팔아 꽃병을 사고 열대 지방의 색을 품은 조화들을 꽂았었다. 그러나 꿈꾸었던 현관은 갈 곳 잃은 물건들을 보관하는 창고로 변해버렸고 꽃병은 물건들에 가려 아예 보이지도 않았다.



모순되게도 정리와 관련 없어 보이는 “부자”라는 단어에는 머릿속 생각을 행동으로 이끌어내는 큰 위력이 있었다. 난 즉시 현관 정리에 착수했다. 큰 자리를 차지하고 있던 작아진 아이 자전거와 킥보드를 중고나라를 통해 처리했다. 그리고 신발 정리 선반을 구매해 갈 곳 없는 신발들에게 자리를 만들어 주었다. 깨끗해진 현관은 큰 만족감을 주었다. 물건들에게 빼앗긴 영토를 “정리”라는 전쟁을 치르며 되찾은 기분이었다. 현관 정리를 통해 자신감을 얻은 나는 소빨도 단김에 빼야 한다며 정리에 날개를 달아 줄 관련 도서를 빌렸다. 정리 전문가가 쓴 책 속 문장들은 마법을 부리듯 자연스럽게 내 등을 떠밀어 행동하게끔 부추겼다. 그 압박감이 어찌나 강한지 마냥 책만 읽고 앉아있는 것은 불가능했다. 왜냐하면 책 읽는 내내 눈길 닿는 모든 장소들이 기한을 넘겨버린 묵은 일처럼 보였기 때문이다. 책을 덮고 일어나 먼지가 켜켜이 쌓인 아동 전집을 꺼냈다. 서랍장을 열어 갖고 놀지 않는 장난감들을 나눴다. 하루는 책상 위를 또 하루는 옷장을 정리했다.

정리는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다. 꽤 큰 노동을 요구했다. 이 정도는 1시간이면 다 하겠지 생각했던 일이 3시간이 넘어서 끝나곤 했다. 하루 만에 집을 다 정리한다는 것은 정리 전문가에게는 몰라도 나에게 가능한 일은 아니었다. 그런데 여기서 주의해야 할 것은 “정리는 힘든 일”로 귀결되어선 안 된다는 것이다. 정리가 힘든 것이 아니라, 오랫동안 정리할 물건들이 아주 많이 쌓였기 때문에 정리가 힘들었던 것이다. 어떤 일이든 양이 많으면 힘들지 않겠는가. 즉, 지인이 말했듯이 정리는 틈날 때마다 해야 했다. 집 곳곳을 틈날 때마다 열어보고 확인해야 했다. 그러다 보면 왜 샀는지 알 수 없는 물건들, 갖고 있는지 모르고 또 샀던 물건들, 혹은 유용하게 쓸 수 있는 물건들과 마주했다. 물건들은 기억에서 잊혀진 채 소리 없는 아우성을 치고 있었다.

더불어 집을 정리하다 보니 정리의 의미를 다시 생각해 보게 되었다. 내가 그동안 생각해 온 정리란 흐트러진 상태에 있는 것들을 모으거나 치워서 질서 있는 상태로 만드는 것이었다. 그러나 물건의 가짓수가 많을 땐 아무리 모아서 바르게 진열해도 만족스럽지 않았다. 공간에는 한계가 있기에 물건 가짓수를 줄이지 않고서는 보기 좋게 나열할 수 없었기 때문이었다. 난 정리가 바르게 진열하는 것이 아니란 것을 깨달았다. 정리의 핵심은 물건의 가짓수를 줄이는 것에 있었다. 사전에서 찾아본 정리의 의미 중 그 세 번째는 “문제가 되거나 불필요한 것을 줄이거나 없애서 말끔하게 바로잡음.”이다. 즉, 정리의 궁극적 목표는 적게 소유하는 것이었다. 물건을 적게 소유하였을 때 완전한 정리에 다다를 수 있었다. 그뿐만 아니라 비로소 각각의 물건이 최적의 장소에 배치되어 빛을 발하고 더욱 쓰임새 있게 사용될 수 있었다.

물건을 줄여나가 적게 소유하니 공간에 여백이 생기게 되었다. 여백은 다른 무언가로 채우지 않아도 그 자체만의 편안한 아름다움이 있었다. 난 여기서 한국의 미, “여백의 미”가 연상됐다. 한국의 도자기나 한복, 회화에는 여백의 미가 담겨있다. 조선의 성리학자들은 청렴결백한 삶의 태도를 강조하며 이를 여백의 미로 표현하고 추구했었다. 청렴결백은 성품이 고결하고 욕심이 없으며 순수한 인품을 가리킨다. 그렇다면 정리의 궁극적 목표인 적게 소유하는 삶을 살면 그 끝에서 우리 조상들이 추구했던 욕심 없이 비우고 단순하게 사는 삶에 다다를 수 있지 않을까? 정리라는 소소한 행동을 하다 보니 조상들이 추구하던 삶의 가치까지 떠올려 보게 됐다. 안 그래도 복잡한 인생인데 정리를 통해 단순하게 사는 것은 어떨까?

오래된 숲의 노래



『숲은 몇 살이에요』

샤를린 콜레트 지음, 지연리 옮김, 40쪽, 머스트비, 2022

L'Age de la foret(2022)

내 아버지는 산을 사랑하는 사람이었다. 본업이 무색하게 직장보다 더 많은 시간을 보낸 곳이 산이었다. 언제라도 산에 오를 수 있는 옷차림과 마음가짐으로 일을 했고, 덕분에 그의 아이들은 사시사철 아름다운 산의 모습과 그곳을 사랑하는 아버지의 뒷모습을 가슴에 담았다. 평소엔 무섭고 엄한 아버지였지만 산에서 만큼은 자상하고 너그러웠다. 그래서일까? 내게 자연은 모든 것을 감싸 안는 아버지의 모습으로 남아 있다. 어린아이에게 푸른 나무로 가득 찬 그곳은 너무도 거대했고, 언제나 변함없는 존재였다. 『숲은 몇 살이에요』 표지에 그려진 커다란 나이테는 어릴 적 나와 아버지 그리고 산의 기억을 불러일으킨다. 우리가 보낸 시간도 저 나이테 속 어딘가에 쌓여 있을 것만 같다.



세로로 긴 판형은 숲과 나무를 그려내는데 너무나 잘 어울린다. 앞뒤 표지를 펼치면 중앙에 빛나는 황금색 나이테가 한가득 채워져 있다. 그 옆에 작은 점처럼 보이는 아마와 할아버지. 어른이든 아이든 큰 나무 옆에서는 둘 다 한없이 작은 존재로 보인다. 매 페이지마다 이들이 어디에 있는지 찾아보는 것 또한 책을 읽는 재미를 더한다. 아이의 생일을 맞아 시작한 하루에서 밤까지 이어지는 이야기는 생명의 탄생과 끝 그리고 다음날 다시 해가 뜨듯 새로운 시작으로 이어짐을 보여주는 구조와 맞닿아 있다. 면지 앞뒤 역시 숲의 아침과 저녁으로 표현되었다.

작가는 이야기를 통해 모든 생명은 탄생과 죽음이 있지만 “영원히 사는 나무”처럼 끝없이 서로 연결되어 있음을 보여준다. 자연은 그 모든 것을 지켜보고 홀로 기억하고 있다. 커다란 나무 아래서 아마의 생일을 축하하는 모습이 담긴 마지막 페이지가 인상적이다. 앞으로 숲이 보고 기억할 모습은 크고 작은 동식물들과 인간이 조화롭게 어울려 사는 삶의 장면들이길. 글과 그림에서 느껴지는 작가의 따스한 시선과 함께 그렇게 되길 바라본다.



2023년 11월호부터 실렸던 [반짝이는 그림책이야기]는 이번호로 마칩니다.
연재해 주신 김별님님께 감사드립니다.



화산 폭발과 지진의 흔적을 품은 인도네시아의 전설들

글: 조연숙 데일리인도네시아 편집장

“돌탑이 무너지고 배가 뒤집혔다…. 화산 폭발과 지진 때문이 아닐까?” “거대한 뱀이 움직이니 산이 흔들렸다… 지진으로 거대한 진동이 확산하는 모양이나 화산 분출로 용암이 흐르는 모양을 묘사한 것이 아닐까” 인도네시아의 대표적인 전설 중 하나인 라라 종그랑(Lara Jonggrang) 이야기와 상꾸리앙(Sangkuriang) 이야기는 현실에서 화산 폭발과 지진을 설명하는 것이 아닐까?

인도네시아인들이 자연재해, 특히 지진과 화산 활동이 잦은 이유를 힌두교적 세계관과 접목해 이야기를 만들어냈을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권혁래 용인대학교 교수는 인도네시아의 신화와 전설에는 자연환경의 요소가 깊이 반영됐고 힌두교의 영향을 받았다고 설명한다.

라라 종그랑 이야기와 머라피 화산 폭발

라라 종그랑 전설은 고대 자바의 반둥 왕자가 라라 종그랑 공주에게 청혼했으나, 공주는 왕자의 청혼을 피하고자 하룻밤 만에 천 개의 사원을 만들라고 요구한다. 이에 왕자는 999개의 탑을 완성하고 마지막 한 개를 남겨놓았으나, 공주가 속임수를 써서 새벽이 온 것처럼 해서 더 이상 탑을 쌓을 수 없게 했다. 왕자는 분노하여 공주를 돌로 변하게 했고, 그녀가 마지막 천 번째 사원이 되었다고 전해진다. 라라 종그랑은 뾰람바난사원(Candi Prambanan)에 있는 「두르가」상의 또 다른 이름이다.

이 이야기는 전설적인 요소를 담고 있지만, 실제로 뾰람바난 사원과 머라피 화산(Merapi Volcano)의 역사적 배경을 고려하면, 왕자의 분노는 지진 또는 화산 폭발로 볼 수 있다. 서기 856년에 중부 자바에서 큰 지진이 발생했고, 이어 1006년에 머라피 화산 대폭발이 일어났다. 역사적 기록과 고고학적 발견에 따르면 당시 지진과 화산 폭발 영향으로 이 지역의 종교 건축물들이 큰 피해를 보았다.

상꾸리앙 전설과 땅구반빠라후 화산

또 다른 인도네시아 전설로는 상꾸리앙 이야기가 있다. 이 이야기는 청년 상꾸리앙과 그의 어머니 다양숨비 사이에서 벌어진 복잡한 관계를 다룬다.

상꾸리앙은 다양숨비가 자신의 어머니임을 알아보지 못한 채 결혼을 제안했으나, 어머니는 결혼을 거절하기 위해 그에게 하루 만에 거대한 배를 만들어 달라는 조건을 건다. 상꾸리앙이 밤새 배를 거의 완성하자 다양숨비는 새벽이 온 것처럼 속여서 배의 완성을 막았다. 이에 상꾸리앙은 화가 나서 배를 뒤집었고, 이 배가 오늘날의 땅구반빠라후 분화구가 되었다고 전해진다. 이 이야기는 분화구의 지형적 특징을 설명하기 위한 전설로 보이며, 실제로 땅구반 빠라후 분화구는 뒤집힌 배처럼 생겼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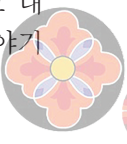
용과 뱀, 지진과 용암

뚜안따빠(Tuantapa) 전설도 흥미롭다. 이 이야기에서는 용과 인간의 싸움이 주요 내용인데, 이에 따라 강력한 지형 변화가 일어났다고 한다. 용암이 움직이는 모습이 거대한 용이 움직이는 모습처럼 보인 건 아닐까? 인도네시아는 지진대와 화산대에 자리 잡고 있어 자연재해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지역이다. 이러한 자연 현상을 인간의 이해 범위 내에서 설명하기 위해 전설과 같은 형태로 이야기가 만들어졌을 가능성이 있다.

마닌자우 호수(Lake Maninjau) 전설도 화산폭발과 연관되어 있다. 수마트라 섬에 위치한 이 거대한 칼데라 호수는 화산 활동으로 인해 형성된 지형이다. 한 쌍의 젊은 연인이 용에게 저주를 받아 호수가 생겼다는 전설이 있지만, 실제로는 오래된 화산 폭발의 결과로 물이 고여 형성된 것이다.

결론

머라피 화산의 분화나 땅구반 빠라후 화산의 형성, 마닌자우 호수의 탄생은 모두 지진, 화산 활동과 같은 지각 활동과 관련이 있어 보인다. 옛 인도네시아인들은 이러한 자연재해의 원인을 이해하고 후대에 교훈을 전하기 위해 신화와 전설의 형태로 이야기를 만들어냈을 것이다. 비록 그 이야기들이 과장되거나 비현실적으로 들릴지 모르지만, 그 속에는 자연재해와 인간의 무기력함이 보인다. 오늘날의 자연 현상을 어떻게 이해하고 대응할 것인가에 대한 교훈을 과거의 전설과 이야기에서 얻을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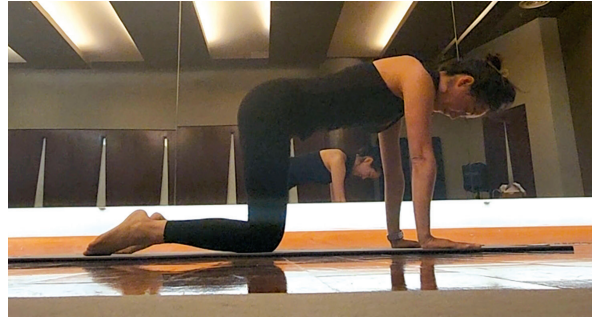


Hyaang, the yoga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요가선생 michelle입니다.

하루 5분, 요가수련으로 몸도 마음도 더욱 가벼워지고, 평온한 향기로 가득하길 기원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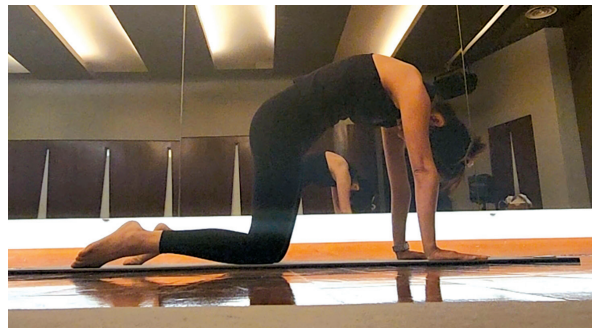
1) Bharmanasana(네발 자세)

- ◆어깨너비=손너비=무릎너비
- ◆코어(아랫배)에 언제나 힘줘요
- ◆손바닥 매트 밀착, 바닥 누르며 팔꿈치를 펴요.
- ◆어깨와 귀 사이는 멀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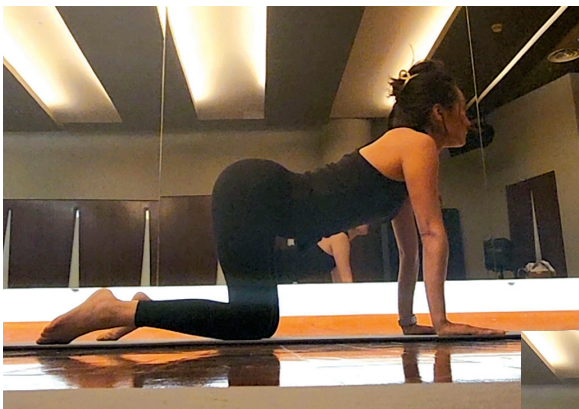
2) Marjariasana(고양이 자세)

- ◆숨을 들이쉬었다가 천천히 내쉬며 등을 도로롱 둥글게 만듭니다.
 - ◆목을 어깨사이 사이로 최대한 집어넣어요.
 - ◆뱃가죽 등가죽 달라붙어요.
- 기지개 켜는 고양이를 상상하면서 부드럽게 동작합니다.



3) Bitilasana(소자세)

- 다시 숨을 천천히 들이쉬며,
- ◆등을 아치로 길게 휘게,
 - ◆엉덩이 뽕족하게 세워요.
 - ◆코어에 힘, 팔꿈치 펴고
 - ◆손으로 바닥 눌러요.
 - ◆시선은 멀리 하늘을 보세요.
 - ◆발가락을 걸고



4) Adho mukha svanasana (다운독 down dog 자세)

- ◆무릎을 천천히 펴니다.(완전히 펴지지 않으면 무릎을 살짝 구부린 채로 뒤통치를 바닥으로 밀어요)
- ◆손바닥은 매트에 밀착한 채로 앞으로 밀어줘요
- ◆코어는 언제나 단단하게,
- ◆어깨와 귀는 멀게, 내쉬는 숨에 상체를 더 낮게 만들어요.

손의 힘이 정말 중요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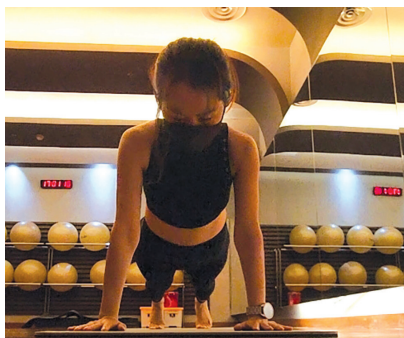
- ◆빨강게 표시한 부분(손가락 시작되는 언덕부분, 손아래언덕부분, 그리고 손가락 끝)이 매트에 완전히 밀착되어야 해요.
- 마치 문어 빨판처럼요.



5) Phalakasana(플랭크plank 자세)

- ◆숨 들이쉬며 엉덩이 낮춰요.
- ◆팔과 바닥 90도로 곧게 뻗어요.
- ◆어깨 움츠러들지 않아요.(어깨와 귀 멀게)
- ◆코어 단단하게, 몸통은 일직선이 되게 해요.
- ◆시선 바닥으로

틀린그림 찾기! 두 자세의 차이점을 찾으신 향기님, 매의 눈 인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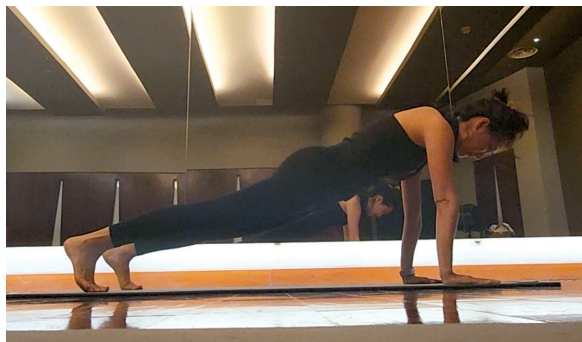


정답은, 바로... 어깨입니다.

어깨가 저렇게 ‘볼록’ 솟아 있어야 해요. (오른쪽 사진)



두 자세의 차이는 너무 쉽죠잉? 둘 다 틀린 자세입니다. 코어가 아래로 쳐져서도(왼쪽), 위로 솟아서도(오른쪽) 안됩니다.



이렇게 반듯하게 일직선이 되어야 해요!

6) Ocean wave

다운독과 플랭크를 번갈아 가며 동작합니다. 모든 동작 천-천히 그리고 부드럽게, 깊고 천천히 호흡하면서 동작을 연결합니다.

딱 10번만 해봐요! 매일 아침, 저녁으로 딱 5분씩만요.

할 수 있죠?

단단한 코어 튼튼한 허리로, 80대 할머니 할아버지 되어도 꼳꼳한 몸으로 살아가요. 우리! 화이팅!

Yoga instructor, Michelle

Yoga class <Hyaang, the Yoga> 운영

운영그룹 및 개인수련 문의는 카톡 'tidapapa'로 문의주세요



Michelle Yang
HYAANG, THE YOGA

<인-한 영 리더 비즈니스 파트너십 강화 포럼> 참석 안내

KOTRA 소개와 성공 사례를 공유를 통해 인도네시아와 한국의 젊은 리더들이 비즈니스 파트너십을 구축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YIKEA (Young Indonesian Korean Entrepreneurs Association)와 KOTRA 공동 주최로 ‘인-한 영 리더 비즈니스 파트너십 강화 포럼’을 개최합니다. KOTRA 발표 이후, 참석자들에게 상담 세션이 제공될 예정입니다.

1. 행사명: 인-한 영 리더 비즈니스 파트너십 강화 포럼
2. 참석 대상: 인도네시아 또는 한국의 청년 대표, 사업가, 중견 이상 직급의 회사원
3. 일시: 2024년 10월 10일
4. 장소: KOTRA 자카르타, Wisma GKBI, 8층 - Suite 801
5. 프로그램 (모든 세션은 통역 없이 영어로 진행)
 - ⊙ 4:30 PM: 리셉션 및 가벼운 다과
 - ⊙ 5:00 PM: 코트라 이장희 사무국장의 개회 연설
 - ⊙ 5:15 PM: YIKEA 회장 윌리엄 슈퍼맨의 YIKEA 소개
 - ⊙ 5:30 PM: 코트라 윤병우 부국장 발표
 - 코트라 개요 및 주요 서비스 소개
 - 인도네시아 및 한국의 외국인 직접 투자 현황
 - 코트라의 지원을 통한 성공 사례
 - ⊙ 6:30 PM: 저녁 리셉션 및 네트워킹 이벤트
6. 참가비: 1인당 350,000 루피아 (행사 일주일 전까지 결제 필요, 취소 시 환불 불가)
7. 참석 링크: <https://tinyurl.com/Yikea-Kotra-Event>
8. 문의: YIKEA 회장 윌리엄 슈퍼맨 (08121 888 203)



Scan to register

Fostering Bilateral Business Partnership between Indonesia & South Korea Young Leaders.



Opening Speech
Jang Hee Lee
Kotra Director General



YIKEA Intro
William Superman
YIKEA Chair



KOTRA Presentation
Byung Woo Yoon
Kotra Deputy Director

10 October 2024 | KOTRA Jakarta, Wisma GKBI, 8th Floor - Suite 801

다문화 속 희망의 색을 더칠하다

한국인의 자부심을 가르치는 《무지개 공부방》 이야기

한동훈(JIKS, 9학년)

8월 24일, 《한인뉴스》 이영미 편집위원, 《테일리인도네시아》 신성철 대표, 조연숙 편집장과 엄강심 인도네시아대학교 (Universitas Indonesia) 인류학과 방문 교수와 땅그랑 찌뜨라 라야에 위치한 《무지개 공부방》에서 고재천 교장님(75세)과의 인터뷰를 진행했다. 《무지개 공부방》은 고재천 교장님이 2007년, 한국과 인도네시아 다문화 가정 학생들에게 한국어와 한국 문화를 가르치기 위해 설립한 무료 교육센터로, 다문화 가정 학생들뿐만 아니라 한국어를 배우고 싶어하는 지역 주민들에게도 ‘열린 사랑방’으로 통한다.

《무지개 공부방》이란

《무지개 공부방》은 2007년 고재천 교장님이 설립한 이래,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한국계 다문화 가정 어린이들을 위해 자택에서 한글, 영어, 음악, 태권도 등 다양한 과목을 가르쳐 왔다. 최근에는 한인 기업과 교민들의 후원으로 공부방을 확장하고, 장학금도 지급하며 더 많은 학생들에게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무지개 공부방》의 주요 활동은 포스코 현지 공장 계열사 조선내화 등 한인 기업의 지원을 통해 한국계 2세들에게 월 장학금을 제공하고, 고등학교 졸업생들에게는 한국 기업 취업과 유학을 지원하는 것이다. 현재 (주)보성에서 4명의 졸업생이 근무 중이며, 한국어 우수 학생 4명은 부산 경성대학교에서 유학 중이다. 이들은 모두 야야산의 보증을 통해 한국 유학 지원을 받는다. 또한, 《무지개 공부방》은 한국어 교육과 컴퓨터 교육을 제공하며, 주말마다 학생들이 모여 공부할 수 있는 프로그램도 운영한다. 이처럼 《무지개 공부방》은 다문화 가정 어린이들이 더 밝은 미래를 열어갈 수 있도록 든든한 지원과 배움의 터전을 제공한다.

《무지개 공부방》설립 목적

고재천 교장님은 한인 2세들에게 단순히 공부만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한국인의 근면함과 정직함을 통해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한 자부심을 심어주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그는 한국에서 은행 지점장으로 근무하다 IMF 사태 때 퇴직한 후, 신학대학에 입학하여 목회자의 길을 걷기 시작했다. 이후 인도네시아에 정착하면서 땅그랑 찌뜨라 지역에 거주하게 되었고, 현지 여성과 가정을 이루고 아이를 낳은 많은 한국 아버지들이 가족을 버리고 한국으로 돌아가는 현실을 목격했다. 그 결과, 다문화 가정의 인도네시아 어머니와 한인 2세 아이들은 혼자 남아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고 교장님은 이들의 어려운 상황을 보며, 베트남 전쟁 중에 보았던 한인 2세들의 모습이 떠올랐다고 한다. 2004년부터 자택에서 소수의 학생들에게 성경과 한글을 가르치기 시작했고, 이를 계기로 2007년 《무지개 공부방》을 설립했다. 처음에는 우리은행, KEB 하나은행 등 여러 기관에서 상가 월세를 보조 받았으나,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 후원이 끊기면서 현재의 주택가로 이사를 하게 되었다. 이 주택의 1층은 공부방으로, 2층은 작은 도서관과 주말 예배당으로 사용되며, 아이들과 지역 주민들을 위한 교육과 예배의 장소로 활용되고 있다.

한인기업의 후원과 봉사의 손길로 운영되는

《무지개 공부방》

12년 전 메리츠금융그룹이 기증한 46인치 스마트 TV가 여전히 《무지개 공부방》의 한쪽 벽에 걸려 있었다. 조금은 낡았지만 정갈하게 관리된 시설과 물건들에서 고재천 교장님과 사모님의 정성이 고스란히 느껴졌다. 한국 2세 자녀들에게는



아버지, 혹은 할아버지와 같은 존재로 통하는 고재천 교장님은 목회자의 마음으로 희생과 사랑을 담아 《무지개 공부방》을 운영해 오셨다.

《무지개 공부방》을 운영하면서 고재천 교장님은 여러 어려움에 직면했다고 전했다. 많은 다문화 가정에서 아버지는 가족을 두고 한국으로 돌아가거나, 이미 돌아가신 경우가 많아 현지 어머니와 함께 자라며 한국어를 배울 기회가 없었던 아이들이 많았다. 그 과정에서 한국인에 대한 상처와 불신도 깊었다. 고 교장님은 이러한 다문화 가정의 아픔을 깊이 공감하며 그들 역시 한국인의 자녀임을 강조하며, 한국어와 한국 문화를 배우고 익히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해, 한글 교육뿐만 아니라 아이들이 학업을 이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고, 취업까지 지원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하지만 코로나 팬데믹 이후 학생 수가 급감하여 현재는 40명 남짓으로 줄어든 상황이다. 다행히 한인회와 교회, 한국 지역사회 의 의료 봉사 단체들의 후원이 이어지고 있지만, 여전히 봉사 인력과 재정 지원이 턱없이 부족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 과거에는 이러한 현실이 공개적으로 논의되지 못했지만, 이제는 점차 동포 사회에서 알려지고 있으며, 한국인이 마땅히 책임지고 해결해야 할 문제라고 인터뷰에서 강조했다.



앞으로의 계획

17년간 《무지개 공부방》을 운영하면서 고재천 교장님 부부는 학생들과 깊은 정을 쌓아왔고, 아이들이 바르고 정직하게 성장하는 모습을 보며 자부심을 느꼈다. 특히, ‘다문화 가정 성공 1호’라 자랑하는 김하나 씨의 이야기를 할 때 고 교장님의 얼굴에는 뿌듯함이 가득했다. 그 모습은 다문화 가정 학생들에 대한 그의 깊은 애정과 헌신을 잘 보여준다. 또한, 많은 어머니들이 고민이 있을 때마다 고 교장님을 찾아와 상담을 받기도 한다. 연로한 나이에도 불구하고 고 교장님은 《무지개 공부방》과 교회의 선교를 이끌어갈 후임자를 양성하는 것이 가장 큰 바람이라고 밝혔다.

지난 9월 1일, 다문화가정후원회 <찌뜨라 땅그랑 코리아 (회장 최진덕)>과 <YAYASAN WARGA KOREAN INDONESIA>이 주관한 K-FOOD MART 개원식이 열렸다. 앞으로 《무지개 공부방》에서는 한글 교육, 디자인 교육, 컴퓨터 교육, 사물놀이, K-POP 댄스 등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순차적으로 제공될 계획이다.

이 기사를 쓰는 나 역시 《무지개 공부방》을 찾는 학생들이 꿈에 한 발짝 더 다가가는 데 작은 보탬이 되고자 지난 5월 <다문화 한마음 큰잔치>와 이번 인터뷰를 계기로 500여 권의 영어책과 한글책을 기증했다. 앞으로도 뜻이 있는 한국인 학생들과 함께 《무지개 공부방》에서 봉사 활동을 계획 중이다. 《무지개 공부방》에서 다문화 가정 학생들이 더 큰 꿈을 품고 성장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란다.

인도네시아에서 뿌리내린 한국 건설의 과거와 현재

한국 건설기업이 인도네시아 시장에 뛰어든 지 어느덧 50년이 넘었다. 한국경제 발전을 견인해 온 우리 건설산업은 인도네시아 시장에 진출하기 앞서 대한민국 정부 수립과 한국전쟁 전후복구사업 과정, 베트남, 중동 건설시장 진출을 빼놓을 수 없다. 이 무렵 한국 건설산업은 잔뼈가 굵어져 현대건설, 대림산업, 동아건설, 삼부토건, 극동건설, 삼환기업 등 굴지의 건설업체들이 성장하기 시작했고, 이를 수행할 건설사를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한 건설업법(1958년)도 도입됐다.

1960년대는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추진하면서 각종 개발사업이 대형화됐다. 이어 1960년대 후반에는 월남전 특수를 계기로 해외시장에 눈을 돌리기 시작했다. 현대건설이 1965년 태국의 파타니 나라티왓 고속도로 건설공사를 수주하면서 우리 건설업체가 해외진출에 첫발을 내디뎠다. 1970년대는 압축 성장을 견인하기 위해 연평균 10.8%가 넘는 국내 건설투자가 이뤄졌다. ‘2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 기간’(1967~1971년)에는 사회기반시설(SOC)의 성장률이 무려 12.6%에 달했다. 또 ‘중동 붐’을 타고 해외진출이 본격화되기 시작했다. 하지만 과다 경쟁, 부실 수주 등 해외 경쟁력을 상실한 건설사들은 해외건설합리화 조치로 해외면허를 반납하기도 했다.

1970년대 ‘오일쇼크’라는 국가적 위기가 닥쳤을 때 한국 건설회사들은 중동 진출을 통해 ‘오일달러’를 벌어들여, 선진국에서 떠나는 제조업을 이어받아 육성해 경제 발전에 밑거름이 됐다. 해외 진출 초기에는 건설 사업들이 적자를 내며 값비싼 수업료를 치렀다. 하지만 1975년 정부가 ‘해외건설촉진법’을 제정하고 국가적으로

지원하면서 서서히 성과를 내기 시작했다.

삼환기업이 1970년 자카르타 주택공사를 수주해 한국 건설회사 최초로 인도네시아에 진출했다. 이후 우리 건설업체의 진출이 이어졌다. 대림산업의 가스압축플랜트공사(1973), 현대건설의 자고라위고속도로(1973), 쌍용건설의 자카르타 하얏트호텔(1993), 발리 인터콘티넨탈호텔(1993), 자카르타증권거래소(1997), 현대건설의 바탐 공항 확장(1997), 아마르타푸라 초고층아파트(1997), 안졸바루해안지구매립공사(1999) 팔렘방수반가스처리시설(2002), 현대건설의 수카르노-하타국제공항 제3여객터미널(2015), 삼성물산의 자와사투파워(Jawa Satu Power, JSP)-복합화력발전 건설 프로젝트(2018), 현대엔지니어링의 ‘발릭파판 정유공장 고도화 프로젝트’(2019)를 수주하는 등 일일이 열거할 수 없을 정도로 많다,

인도네시아에서 우리 건설기업이 구슬땀을 흘리는 과정에서 겪은 애환은 적지 않다. 삼환기업은 1970년 6월에 시공에 들어간 미국 공병단이 발주한 63만3천 달러 규모의 자카르타 주택공사를 수주해 인도네시아 첫 발을 딛은 후 1980년 8월 수마트라 횡단고속도로 잠비(Jambi)~무아라붕오(Muara Bungo) 간 고속도로를 시공하였다. 1973년 2월에 자카르타에 지점을 설치한 현대건설은 자카르타와 보고르 지역을 잇는 자고라위(Jagorawi) 고속도로 건설을 1974년 초에 착공해 1979년 6월에 완공했다. 이 프로젝트에 총 공사비는 3,400만 달러가 투입되었으며, 악천후와 엄격한 감독하에서 공사를 진행해 상당한 액수의 적자를 감수해야 했다. 특히 우기에 공사가 지연



글: 신성철(<우정을 엮어 신뢰를 쌓은> 저자)

되자, 천막을 치고 공사를 진행한 ‘천막공법’이라는 기발한 방법으로 완벽에 가까운 시공을 해 지금도 한국 건설업체뿐만 아니라 현지 한인들의 자부심으로 남아있다.

현대건설은 자고라위 고속도로 건설에서 높은 점수를 얻어 해외 플랜트 분야 첫 번째 공사인 세멘찌비농(Semen Cibinong, 1973~1978년) 시멘트공장, 두마이 정유공장(1982~1984년) 이외에도 발리공항과 바탐 공항 확장 공사 등 많은 실적을 남겼다. 북부수마트라 토바 호수 인근에 있는 레누(Renun) 수력발전소 및 도수로 공사는 1995년에 3월에 시작해 2003년 3월에 완공 예정이었으나, 2005년 8월에 완공할 만큼 난공사였다. 당시 현장 관리책임자는 “터널 속은 물이 사방에서 쏟아져 나오고 먼지와 소음, 진동으로 지옥 그 자체였다”고 회고했다.

1973년 인도네시아에 진출한 대림산업은 1982년 2월 수마트라 리아우주 두마이 탄화수소공장을 수주한다. 이 프로젝트는 총 공사비가 10억 달러에 달했으며 한국인 인력 1,500여명이 투입된 대형 프로젝트였다. 이후 대림산업은 반뜰주 쥘레곤 철강단지 내 냉연제철공장을 EPC(설계·조달·시공) 방식으로 수주했다. 이 공사는 1985년에 5월에 착공해 1987년 5월에 완공했다.

1979년에 자카르타지사를 설립한 쌍용건설은 이듬해 수마트라 횡단도로 건설공사를 수주했다. 해외 고급 건축 분야에서 명성을 쌓아온 쌍용건설은 그랜드 하얏트호텔 등 인도네시아에서도 굵직한 랜드마크를 세운다. 그랜드 하얏트호텔은 쇼핑몰 플라자인도네시아를 포함하는 당시로서는 초호화 복합단지로 총공사비 1억2천만달러 규모이다. 이 호텔은 수하르토 대통령의 2남 밤방이 소



유한 비만타라그룹이 발주한 프로젝트이다. 인도네시아 군부와 관계가 각별했던 쌍용건설은 자카르타 증권거래소II, 발리 인터콘티넨털호텔, 자카르타 포시즌호텔(2016년 완공) 등을 완공했다.

국제실업은 1974년 2월 세계은행 산하 국제부흥개발은행(IBRD) 차관 자금을 재원으로 인도네시아 정부가 발주한 1,750만 달러 규모의 도로공사 국제입찰에서 도급계약을 수주했다. 북부술라웨시주 마나도(Manado)에서 아무랑(Amurang)을 잇는 연장 82km 고속도로는 인도네시아 정부가 도서지역산업개발사업의 하나로 추진한 프로젝트이다. 국제실업은 호주와 일본 건설업체와 협력해 시방서를 준수한 양질의 시공으로 좋은 평가를 받아 다음 공사도 수주했다. 1977년 북부수마트라 아엑나올리(Aek Nalui)~파루똥(Tarutung) 도로공사는 공사금액 1,950만 달러, 연장 129km 규모의 프로젝트로 한국 건설의 도로공사 시공 능력을 인정받았다. 국제실업은 인도네시아에서 2건의 대규모 공사를 시공했지만 1983년 서울 본사가 부도가 나면서 인도네시아에서 사업을 이어 나가지 못했다.

1980년에 진출한 한보종합건설은 자카르타~머락(Merak) 간 13.5km의 고속도로 공사를 1981년 3월에 착공해 1982년에 완공했다. 이어 자카르타 토망(Tomang)~그로골(Grogol) 도심고속도로 공사 등 대형토목공사를 진행하면서 시공 능력을 인정받았다. 1996년에는 자카르타 그로골 고가도로 인터체인지와 쯡까렝(Cengkareng) 톨게이트 진입로 공사 2건을 1,100만 달러에 인도네시아 정부와 수의계약을 했다. 이 공사 작업 중 상판이 무너지는 사고가 발생해 현지인 작업자가 희생되었다. 얹친 데 덮친 격으로 한보그룹의 한보종합건설은 주거래 은행인 제일은행의 지원 중지로 1997년에 부도를 맞고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졌다.

유망한 인도네시아 건설시장의 기회와 도전

인도네시아는 동남아시아 지역에서 가장 큰 경제 및 건설 시장을 보유하고 있으며, 향후 5년간 5% 이상의 높은 경제성장이 전망되는 등 그 잠재력도 높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인도네시아에서 건설 부문은 최근 전체 국내총생산(GDP)의 10% 수준을 차지하고 있다. 2020년 건설 산업은 전체 GDP의 10.7%를 차지해 제조업(19.9%), 농림수산물(13.7%), 도소매 무역(12.9%)에 이어 4위를 기록할 만큼 비중이 큰 산업이다.

글로벌 시장조사업체 IHS마켓, 글로벌데이터 등 해외 조사기관 자료에 따르면 2022년 인도네시아 건설시장 규모는 4,096억 달러로 한국 건설시장 규모의 2배 수준이다. 2026년까지 연평균 9.4% 성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우리 기업의 인도네시아 건설시장 진출도 활발하다. 한국해외건설협회에 따르면 우리 기업은 1970년 삼환기업이 주택공사를 수주하며 인도네시아에 처음 진출한 이래 2019년까지 총 186개 기업이 571건, 212.1억 달러 규모의 프로젝트를 수주하였다. 이는 전 세계 누적수주액 기준 10위, 아시아 지역 기준으로는 싱가포르(431억 달러), 베트남(407억 달러), 인도(222억 달러)에 이은 4위에 해당하며, 특히 2019년도에는 16.8%의 수주 비중을 차지하며 전 세계에게 가장 높은 수주액을 기록하기도 하였다. 공사 종류별 진출 현황을 보면 산업설비가 64.2%(98건, 136.3억 달러), 토목이 16.4%(113건, 34.7억 달러) 그리고 건축이 14.2%(108건, 30.1억 달러) 그리고 기타(전기, 통신, 용역)가 5.2%(252건, 11.0억 달러)로 산업설비 분야가 압도적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무엇보다 인도네시아 건설시장은 인도네시아판 네옴(NEOM) 프로젝트로 불리는 신수도 누산타라(Nusantara)를 주목할 수밖에 없다. 조코 위도도 정부는 2019년 8월 자바섬의 인구·경제 집중 현상과 환경문제 등을 해결하고 국토의 균형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수도 이전을 발표했다. 코로나 19 팬데믹으로 수도 이전 사업의 진행이 지연되기도 했으나, 관련 법규정을 마련하고 2022년 3월 밤방 수산토또노 신수도청장을 임명하면서 본격적으로 이전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2045년 최종 완공을 목표로 추진 중인 신수도 누산타라의 면적은 25만6000헥타르로 자카르타보다 4배 더 넓다. 인도네시아는 신수도 사업을 통해 국내외 투자를 유치해 신성장동력을 확보하고, 동시에 탄소중립 정책 실현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인도네시아 신수도 이전 사업은 4단계로 이루어질 계획이다. △1단계(2020~2024년)는 법규정 마련, 주요 인프라 구축(주거단지, 전력, 수도, 도로), 공무원 이전(인구 20만명), 2024년 독립 기념일 이전에 대통령궁 건립 완료 등이다. △2단계(2025~2035년)는 주요 경제 인프라 구축 완료, 중앙 행정부 구축 △3단계(2036~2045년)는 광역도시 구축 및 순환경제 시행을 위한 네트워크 마련 △4단계(2045년 이후)는 세계 10대 도시 진입(인구 190만명 이상), 탄소배출 제로 달성 및 100% 신재생에너지원 구축 등이다. 신수도는 ‘미래형 스마트 산림도시’ (Future Smart Forest City)로 구축된다. 인도네시아 신수도청은 최근 ‘21세기 지속 가능한 스마트 열대우림 도시 콘셉트로 2045년 탄소중립 도시가 될 것’이라고 발표했다.

인도네시아의 신수도 이전 사업은 약 340억 달러가 소요되는 대규모 사업이다. 총 소요 자금 가

운데 인도네시아 정부 예산은 약 20%가 투입되고, 나머지 80%는 민간 투자로 진행될 계획이다. 여기에서 민간 투자는 외국인 투자도 포함되며, 2045년까지 주요국과 협력을 확대하고 해외 투자를 유치해 새로운 경제 성장의 동력을 구축할 예정이다. 정부 예산은 토지개발, 도시계획, 산림 복구 등에 사용되며, 도로 상수도 주택 등 핵심 인프라는 민관합작으로 진행하고, 상업시설 등은 민간투자로 충당할 계획이다. 2023년 3월 인도네시아 정부는 ‘2023년 정부령 제12호(Government Regulation No.12 of 2023)’를 통해 신수도 투자에 대한 인센티브를 발표했다. 인센티브는 법인세 및 개인소득세에 대한 세제 혜택과 외국인 근로자 거주 및 토지에 대한 혜택을 포함하고 있다.

조코위 대통령의 주요 국정과제는 신수도 이전 사업이다. 2014년에 임기를 시작한 조코위 대통령은 2024년 10월 임기가 끝난다. 차기 대통령에 따라 수도 이전이 탄력을 잃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면서 해외 투자 유치에 난항을 겪었다. 하지만 2024년 2월 대선에서 조코위의 정책을 계승하겠다고 공약한 프라보워 수비안토 후보가 당선되면서 신수도 투자의 열기가 다시 뜨거워질 전망이다.

코트라 자카르타무역관이 발표한 2023년 5월 보고서에서 인도네시아 정부가 아직 투자 시 토지 획득 방법에 대한 세부적인 준비가 되지 않아 어려움을 겪고 있다. 신수도 이전과 관련해 투자를 고려하고 있다면, 인도네시아 현지 사정상 일정과 세부 계획이 변할 수 있는 만큼 현지 동향에 대해 주목하고 면밀한 사전 검토가 선행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다음호에 계속

한인니문화연구원, ‘2024년 문학상 시상식 및 문화예술공연’ 성황리 개최



한인회 한인니문화연구원(원장 사공경)이 주최한 ‘2024년 문학상 시상식 및 문화예술공연’이 9월 28일 오후 2시 Gedung Kesenian Jakarta에서 성대하게 개최되었다.

이날 기념행사에는 《주아세안 대한민국 대표부》 이장근 대사, 《주인도네시아 대한민국 대사관》 박수덕 공사와 이성호, 류완수 영사, 《재인도네시아한인회》 박재한 회장, 《한-인니산림협력센터》 조준규 센터장, 《자카르타한국국제학교》 이선아 교장, 《재인도네시아 한인회》 수석부회장 이자 《무궁화유통》 김종헌대표, 《민주평통동남아남부협의회》 최태립 부회장, 《재인니한인중소기업협의회(KOSA)》 장운하 회장, 《PT. System Ever Indonesia》 권오철 대표, 《PT. Pratama Abadi Industry》 정차운 이사, 《인한친선협회》 Adhi Wargono회장, 《Historika Indonesia》 Abdul Basyith 회장, 《UPI》 Didin Syamsudin 교수, 《UNAS》 정수아 교수, 패션 디자이너이Harry Darsono, 《중국어여성협회》 Surijaty 등 기관, 단체 외에도 학계, 예술계, 미디어 등에서도 많은 귀빈들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대사관이 13년간 꾸준히 지원해 온 시상식은 앙클롱 연주로 인도네시아 국가와 대한민국 애국가로 청중에게 감동을 전하며 시작되었다. 시상식은 <인도네시아 생태 이야기> <나의 한국 이야기> <인도네시아 이야기> 순으로 진행되었다. 1부

사회는 이영미 아동문학과와 장대영 연구원 팀리더가, 2부는 채인숙 시인과 장대영 팀리더가 맡았다. 행사에는 한국과 인도네시아 예술인의 공연이 이어졌으며, 첫 번째로 ACS Jakarta Dance팀이 K-Dance를 선보여 흥을 돋우었고, 이어 인도네시아 전통 공연 Tepak Kipas Koneng (Sanggar Mawar Budaya)이 펼쳐졌다.

국악사랑 팀의 선반사물놀이 공연으로 <나의 한국 이야기> 시상식이 마무리된 후, 2부는 앙클롱 연주가 ‘아리랑’과 ‘병아완 솔로’를 연주하며 시작되었다.

청소년부 시상 후 Bali 전통춤 ‘Tari Cendrawasih’와 ‘Gending Sriwijaya’를 감상하고 일반부 시상이 이어졌다. ‘자카르타 경로당’으로 대상을 수상한 서상영 씨는 자카르타에서 ‘미르 한의원’을 운영하는 한의사로, 수상 소감에서 이방인들이 어려움을 나누고 위로를 받을 수 있는 공간을 담았다고 말했다.

수상자들의 앙클롱 연주가 끝난 뒤에는 2011년 유네스코가 지정한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된 ‘사만가요’를 끝으로 주인도네시아 한인회 한인니문화연구원과 한인니산림협력센터가 주관하고, 주인도네시아 한국대사관, 주아세안한국대표부, 주인도네시아한인회, 한국국제학교, 한국국제교류재단(KF)이 협력하며, 《재외동포청》 《재인도네시아한인회》 《무궁화유통》 《영림원소프트랩》



《PT. System Ever Indonesia》《PT. Freight Cargo Logistics》《PT. Pratama Abadi Industry》《F1 Logix》《재인니한인중소기업협의회(KOSA)》《한국자유총연맹》

《인-한청년기업가협회》에서 후원하는, 제13회 <인도네시아 이야기> 시상식을 모두 마쳤다.

해외에서 해외동포단체 주최로는 가장 오랜 기간 지속된 한인 문학상은 <인도네시아 이야기>가 유일하다. 이러한 이유로 올해는 특히 축하와 기념사가 더욱 빛났던 해였다.

《주아세안 대한민국 대표부》 이장근 대사는 BSJ 12학년 황다인 학생의 ‘글로벌 코리안, 우리가 주역’ 이 <인도네시아 이야기>의 취지에 잘 부합한다고 말하며, 아세안과 인도네시아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을 당부했다. 한국과 인도네시아의 이야기가 바로 우리 미래의 이야기가 될 것이며, 한인사회 모두가 이 문학상에 힘을 더해 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주인도네시아 대한민국 대사관》 박수덕 공사는 인도네시아 국민들을 대상으로 처음 개최된 <나의 한국 이야기> 공모전과 같은 ‘변화의 시도’가 양국 간의 우정을 한층 더 깊게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재인도네시아 한인회》박재한 한인회장은 기념사에서 자신의 서툰 색소폰 연주 경험을 비유로 들며, 좋아하는 일을 통해 성장하고 행복을 찾는 과정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양국의 전

통 문화가 어우러지는 행사가 양국이 함께 즐기는 축제로 자리잡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인니 산림협력센터》 조준규 센터장은 첫 회부터 공동 주최해 온 <인도네시아 생태 이야기> 공모전을 3회나 함께한 기쁨을 표하며, 자연을 사랑하고 이해할수록 문학도 그 깊이와 감동을 더할 수 있다고 당부했다.

《무궁화유통》 김종현 대표는 “현지의 문화, 언어, 그리고 다양한 민족적 특성을 깊이 이해해야 성공할 수 있다”는 자신의 사업가적 경험을 전하며, 47년간 인도네시아에 거주해 온 한인으로서 양국 간의 문화 교류를 적극 지원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나의 한국 이야기> 공모전을 후원한 《PT. System Ever Indonesia》 권오철 대표는 한국과 인도네시아를 잇는 새로운 다리가 될 작품들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2010년 <인도네시아 이야기> 문학상을 시작으로, 2021년에는 코로나 팬데믹의 어려움 속에서도 인도네시아 생태를 주제로 한 <인도네시아 생태 이야기> 문학상을 추가했으며, 올해는 인도네시아 친구들이 한국어로 한국 정서를 표현하는 <나의 한국 이야기> 문학상을 새롭게 출범시킨 《한인니문화연구원》사공 경 원장은 “문학상들이 많은 단체의 후원과 한인, 인도네시아인들의 참여로 발전했다”고 겸손하게 밝혔다.

(제공: 한인니문화연구원)



인도네시아에 희망을 심는 ‘Mangrow with Me’ 프로젝트

박승헌(학생기자/ACS Jakarta, 10학년)

2024년 9월 8일, ACS Jakarta를 비롯한 30명의 국제학교 학생들이 자카르타 북부의 맹그로브 생태공원 ‘Taman Wisata Alam Mangrove Angke Kapuk’에 ‘Mangrow with Me’ 프로젝트에 참가하기 위해 모였다. 이 생태공원은 인도네시아 자연보호구역 중 하나로, 맹그로브가 군락을 이루어 해일과 태풍을 막아주는 천연 방파제 역할을 하고 있다.

‘Mangrow with Me’는 2022년 ACS 자카르타 학생들이 주도해 설립한 Mangroovy 그룹의 자연 보호 프로젝트다. Mangroovy는 창립 첫해에 100그루의 맹그로브를 심으며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했으며, 2024년에는 더 많은 인원이 참여해 맹그로브 숲을 확장하기 위한 노력을 이어가고 있다. 박승헌 학생은 “이번 프로젝트를 통해 인도네시아 사회에 더 널리 환경 보호의 중요성을 알리고자 한다”며 의지를 밝혔다.

이날 오전 11시 30분, 학생들은 공원 입구에 모여 간단한 오리엔테이션을 마친 후 맹그로브 숲으로 향했다. 콘크리트 길을 지나 대나무 다리에 들어서자 양 옆으로 펼쳐진 수백 그루의 맹그로브 나무들이 장관을 이루었다. 흔들리는 대나무 다리는 긴장감을 주었지만, 안내원의 “맹그로브가 바닷물의 염분을 흡수해 환경을 보호한다”는 설명이 학생들의 호기심을 자극했다. 숲 한가운데 자리 잡은 색다른 풍경의 Mangrove House Cafe에서 잠시 휴식을 취한 후, 학생들은 보트를 타고 맹

그로브 숲을 돌아보았다. 미로 같은 숲에서 다양한 야생동물을 만나며 탐험의 즐거움을 느낀 학생들은, 마치 시간 여행을 하는 듯한 경험을 나누었다. 9학년부터 12학년까지 다양한 학년이 함께한 이 탐험은 자연과 환경 보호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제공했다.

오후에는 학생들이 직접 두 그루의 맹그로브 나무를 심는 활동이 이어졌다. 발목을 감싸는 진흙과 양말 사이로 스며드는 물의 촉감에 당황하는 학생도 있었지만, 곧 평온을 되찾고 나무 심기에 집중했다. 환경 보호 활동에 대한 책임감과 성취감을 느낀 학생들은, 자신의 손으로 심은 나무들이 훗날 뿌리 깊은 나무로 성장할 것을 기대하며 즐거운 상상을 펼쳤다. 프로젝트 중간중간, 학생들은 음식을 사서 나누어먹고 유대감을 높이며 다른 학교 친구들과도 어울릴 수 있었다. ACS Jakarta를 포함한 ‘Mangrow with Me’ 프로젝트에 참가한 학생들은 단순히 나무를 심는 것을 넘어, 환경 보호에 대한 책임감을 느꼈다.

프랑스 출신의 Thalía는 “이번 활동을 통해 환경 보호의 중요성을 다시 한 번 깨달았고, 더 나은 미래를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작은 일들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소감을 전했다. 11학년 Lewi는 “자연과 다시 연결되는 기회였고, 자카르타의 환경 보호에 기여할 수 있어 뜻깊었다”고 밝혔다. 또, 작년에 이어 올해도 참가한 10학년 Samantha Huang은 “어릴 때부터 자연 보호에 관심이

많았으며, 이번 활동을 통해 환경에 대한 이해가 깊어졌다” 며, 장래 진로를 탐색하는 데에도 큰 도움이 되었다고 말했다.

Mangroovy의 대표 Amanda Munandar(ACS Jakarta, 11학년)는 “작년부터 이끌어온 이 프로젝트는 학생들이 자연 속에서 몸소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기획되었다. 팬데믹으로 활동이 잠시 중단되었지만, 더 많은 학생들이 함께하면서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환경 보호를 위한 활동을 이어가길 바란다” 고 전했다.

안내원이 맹그로브 나무의 잎사귀가 바닷물의 염분을 흡수해 짠맛이 난다는 흥미로운 사실을 알려주었다. 학생들은 호기심에 잎사귀를 살짝 떼어 맛보았고, 실제로 짠맛이 입안에 퍼지자 놀라며 웃음을 터뜨렸다. 처음 겪는 자연의 신비로운 경험에 학생들은 잎사귀 맛을 서로 비교하며, 맹그로브 숲의 놀라운 생태적 기능에 대해 더욱 관심을 갖게 되었다.

프로젝트에 참가한 학생들은 숲 한복판에 놓인 대나무 다리를 건넜다. 발밑에서 삐걱거리는 소리를 내는 다리 양옆으로는 무성한 맹그로브 나무들이 줄지어 서 있었다. 학생들은 다리를 건너면서 약간의 긴장감을 느꼈지만, 주변을 둘러싼 초록빛 풍경과 맹그로브 나무 사이로 스며드는 바람에 한껏 들떴다. 다리 아래로는 고요하게 흐르는 물속을 헤엄치는 작은 물고기를 보며 ‘자연의 조화’ 를 느꼈다.



학생들은 맹그로브 숲 가장자리의 진흙 속으로 조심스럽게 발을 들였다. 안내원의 지시에 따라 각자에게 나눠진 작은 맹그로브 묘목을 손에 쥔 채, 진흙 속에 구멍을 파고 그곳에 묘목을 심었다. 발목까지 차오르는 진흙과 물의 미끌거림에 당황하기도 했지만, 곧 익숙해져 나무 심기에 몰두했다. 진흙 속에 나무가 단단히 자리 잡을 때마다 맹그로브 묘목이 자라 인도네시아를 지켜줄 든든한 방파제가 될 것을 상상하며, 뿌듯한 미소를 지었다.

최근 급격한 산업화로 인해 인도네시아의 맹그로브 숲이 빠르게 감소하고 있다. 3년 전만 해도 약 350만 헥타르에 달하던 맹그로브 숲은 현재 330만 헥타르로 축소되었으며, 이 중 20만 헥타르의 숲은 영구적으로 파괴되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남은 맹그로브를 보호하고 그 서식지를 복원하려는 노력이 그 어느 때보다 시급하다. 맹그로브 숲은 해양 생태계를 보호하고, 지질 변화로 인한 침식을 완화하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 따라서 맹그로브 서식지를 확장하는 것은 가라앉고 있는 인도네시아 해안 지역을 보호하는 데 중요한 기회가 될 것이다. 박승헌 학생(ACS Jakarta, 10학년)이 프로젝트의 소감을 밝히는 자리에서 말한 “내일 지구가 멸망할지라도, 오늘 한 그루의 맹그로브를 심겠다” 는 다짐은 환경 보호의 중요성을 다시 한 번 일깨운다.

인도네시아에 희망을 심는 ‘Mangrow with Me’ 프로젝트는 단순히 나무를 심는 활동을 넘어, 미래를 위한 작은 씨앗을 심는다는 의미를 지닌다. 맹그로브 숲의 중요성을 깨닫고 이를 보존하려는 학생들의 열정이 모여, 한 그루 한 그루의 나무가 인도네시아 해안선을 지켜줄 방파제로 자라나길 바라는 마음을 담았다. 이 프로젝트는 맹그로브 나무 심기를 통해 자연을 보존하는 동시에, 인도네시아의 환경 문제를 해결하려는 작은 첫걸음이다. 학생들이 직접 참여하여 나무를 심는 과정은 단순한 체험을 넘어, 그들이 환경 보호의 중요성을 깨닫고 실천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 확신한다.



사단법인 한국서협 인니지회 초대작가전

9월 5일 오후 3시 오프닝 세레모니에는 대사관과 한인회, 코참 등 다수의 내빈들이 참석하여 축하와 함께 보기 드문 전시를 즐겼습니다.

이번 전시회 참여 작가는 목정 장 임, 윤초 김영주, 도념 제경중, 일우 김도영, 우빈 양승식, 동음 김혜정 작가가 각 10점씩 출품했는데, 지도선생인 인재 손인식 작가도 찬조출품 했습니다.

“코린도 그룹의 장소 후원 덕으로 멋진 전시를 치를 수 있었어요. 정말 감사한 마음 큼니다.”

사단법인 한국서협 인도네시아 지회 소속 초대작가 6인이 <自强不息(자강불식), 스스로 힘써 쉬지 않으리라> 전시를 마치고 앞 다투어 한 말입니다. 그동안 전시 장소로 목말랐던 때문이겠지요. 자필묵연을 이끄는 손인식 작가 또한 “이번 코린도의 장소협찬으로 자부심도 생기고 중국계 서예가들에게 가오(?)도 좀 섰다.” 며 웃었습니다.

사단법인 한국서협 인니지회는 인도네시아 한인 동포들의 서예협회(자필묵연)입니다. 몇 개의 지역에서 매주 동호회 활동을 하며, 매년 정기전을 펼칩니다. 아울러 격년제로 열리는 세계서예비엔날레 해외동포전에도 꾸준히 참여하여 인니동포들의 문화활동을 알리기도 합니다. 또한 매년 한국의 유수한 공모전에 출품하여 좋은 성적을 거두고 있습니다.

2024년에는 도념 제경중, 우빈 양승식 회원이 36회 대한민국서예대전과 26회 서울서화대전에 심사위원으로 초청받아 참가하기도 했습니다.

초대작가란 각 공모전 규정에 의한 일정 점수를 취득한 작가를 지칭합니다. 단 문단의 등단처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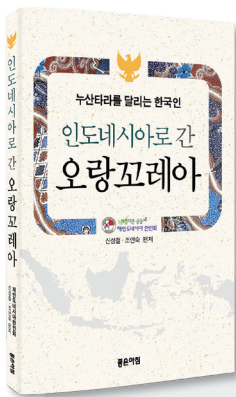
한 번의 당선으로 등단이 되는 것이 아니고 짧게는 10여년 전후, 길게는 20년이 걸리기도 합니다. 그간 인니지회에서는 10여명의 회원이 초대작가의 영광을 안았는데, 이번 처음 기획하는 초대작가전에는 6명이 각 10점(총 60여점)의 작품으로 참가했습니다.

서예는 오랜 전통과 고아한 품격을 지닌 한국의 전통예술입니다. 자필묵연 회원들은 타국에서 서예를 갈고 닦아 전시를 하며 동포사회 문화와 감성 양양에 기여합니다. 타국에서 한류 문화콘텐츠를 가꾸며 심고 있다고 자부합니다. 이런 모습은 인도네시아인은 물론 제 3국인들에게도 선한영향력으로 다가갈 것입니다.

6인의 초대작가전 自强不息(자강불식)의 의미처럼 계속해서 힘써 닦아 나갈 것입니다. 넓은 장소를 협찬해준 코린도 그룹에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제공: 제경중 초대작가전 운영위원장]
(+62 81183 0477)





[신간] ‘인도네시아로 간 오랑꼬레아’

재인도네시아 한인회가 오는 9월 20일 한인의 날에 즈음해 <인도네시아로 간 오랑꼬레아>를 출간했다.

데일리인도네시아의 신성철 발행인과 조연숙 편집장 공저한 <인도네시아로 간 오랑꼬레아>는 인도네시아에서 활동하고 있는 한국 기업과 한인에 대한 이야기이다.

신간은 인도네시아에서 한인들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 한국기업은 인도네시아에서 어떤 사업을 어떻게 펼쳤는지, 한국과 인도네시아의 외교 관계는 어떻게 발전시켜 왔는지 등에 관한 기록이다.

이 책의 발행인 박재한 재인도네시아 한인회장은 “2020년 출간한 <인도네시아 한인100년사>는 우리 이야기를 우리 스스로 기록한 것이고, 2023년 한-인니 수교 50주년을 맞아 출간한 인도네시아어판 <우정을 엮어 신뢰를 쌓은>은 인도네시아인에게 한인공동체를 소개하기 위함”이라고 말했다.

이어 박 회장은 “이제 고국에 있는 우리 동포에게 인도네시아 한인들을 소개하는 <인도네시아로 간 오랑꼬레아>를 출판했다”라며 “재임 기간 동안 주요 사업 가운데 하나인 ‘인도네시아 한인 역사 바로 세우기’를 무난히 마무리할 수 있게 됐다”라고 출판 소감을 말했다.

저자는 “이주자의 삶은 기록하지 않다. 인도네시아에서는 외국인으로서 조심해야 하고, 한국에서는 물정을 모르는 재외동포로서 어색해한다. 한 사람이 고국의 보호와 안정감을 박차고 해외로 나가게 하는 동력은 무엇일까?”라는 질문을 던졌다.

인도네시아는 우리나라와 관련해 ‘최초’ 또

는 ‘1호’ 수식어가 붙은 역사가 많다. 1968년 ‘한국 해외 투자 1호’ 한국남방개발(KO-DECO)의 원목 사업, 1973년 ‘한국 최초 해외 생산공장 1호’인 대상(당시 미원), 1981년 ‘한국 최초 해외 유전 개발 사업’ 서마두라 유전 공동 개발한 나라이다. 1992년 우리나라 대외 무상원조 기관인 코이카(KOICA)의 해외사무소 1호 설치 국가. 한국이 만든 고등 훈련기 T-50과 잠수함을 가장 먼저 사준 나라도 인도네시아이다.

인도네시아 찌아찌아족의 한글 도입은 한글 수출 1호 사례로 꼽힌다. 이렇게 한국인들은 낯선 땅 인도네시아에서 없는 길을 만들며 한국과 인도네시아의 발전과 개인의 성공을 이뤄냈다. 저자는 “이 책은 단기간 머물다 가는 외부자의 눈이 아닌, 현지에서 장기간 일하며 살고 있는 거주자이자 생활인의 기록”이라며 “이 책이 한국기업과 한국인들이 왜 인도네시아로 갔는지에 대한 궁금한 점을 풀어주는 안내서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 책은 한인뉴스와 데일리인도네시아에 실린 기사와 칼럼을 기초로 쓰였고, 단행본으로 만드는 과정에서 일부 본문을 삭제하거나 축약하였음을 밝혀둔다.

2020년 한인사 작업이 시작된 이후에도 한인과 한국기업들은 인도네시아에서 계속해서 새로운 역사를 써왔다. 서부자바주 가룟 지역의 꼬마루딘 양칠성길(Jalan Komarudin Yang Chil Sung)이 만들어져서 직접 취재해서 추가하는 등 일부는 추가했지만, 현상을 보면서 새롭게 추가하지 못한 내용들은 아쉬움을 남겼다.

채무보증(PENANGGUNGAN UTANG)(2)

(전호에서 계속)

4. 채무보증인과 채무자와의 관계

가. 보증인이 채무자의 채무를 갚은 경우에는 채권자의 모든 권리가 보증인에게 넘어 간다(민법 제1840조). 따라서 보증인은 채권자가 가지고 있는 근저당권 혹은 양도 담보권을 물려받게 된다. 채무자가 파산선고를 받는 경우에 근저당권이 나 양도 담보권 보유자는 파산선고에 관계없이 근저당권이나 양도 담보권 목적물을 공매하여 채권을 우선적으로 변제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채무자가 파산선고를 받으면 파산선고일로부터 90일 동안 담보물 공매를 금하며, 90일이 지난 후 60일 이내에 담보물을 공매해야 한다. 60일 이내에 담보물을 공매하지 못하면 담보물에 대한 매각권이 관재인에게 넘어가며, 관재인이 공매하여 공매대금으로 담보권 보유자에게 채무를 우선 상환한다. 공매 대금이 채무액보다 많으면 초과분을 파산재산에 귀속시키고, 부족한 경우에는 부족분은 일반순위 채권으로 분류된다.

나. 보증인이 채무자의 채무를 채권자에게 변제한 경우에, 보증인은 채권자에게 갚은 채무액, 이자 및 관련 경비를 채무자에게 청구할 수 있다(*보증인의 구상권), 아울러 민법은 보증인에게 피해보상 청구까지 허용하고 있다.

다.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보증인이 채무를 변제하기 전 일지라도 채무자에게 손해배상 청구 혹은 보증 해제 청구를 할 수 있다고 민법 제1843조에 규정되어 있다.

- (1) 보증인이 채권자로부터 채무를 변제하라고 피소된 경우
- (2) 보증인의 보증을 일정시간이 지나면 보증을 해제해 주겠다고 약정한 경우

(3) 채무가 만기된 경우

(4) 본 채권 채무 약정서에 채무 만기일이 명시되지 않았는데 약정일로부터 10년이 지난 경우, 그러나 이 조항은 내용이 비논리적이기 때문에 법조항은 있지만 실제로는 효력을 보지 못하고 있다.

5. 채무보증 시 유념해야 할 사항

가. 보증인의 법적 지위를 기재한다.

(1) 개인 자격으로 채무 보증을 하는지 단체/회사의 대표 자격으로 채무 보증을 하는지 분명하게 기재한다. 개인 자격으로 채무보증을 서는 경우에 독신자는 보증인으로 서명만 하면 되나 배우자가 있는 보증인은 부부 재산 분리를 등기하지 않은 보증인은 반드시 배우자의 보증 동의가 있어야 한다. 혼인법 제35조와 제36조에 부부의 재산은 부부 공동 소유라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상대 배우자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배우자의 동의가 없는 채무보증은 민법 제 1320조에 규정된 계약의 적법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하자보증이 된다. 그러나 부부 간에 재산분리 약정을 체결하고 등기한 부부는 재산이 부부공동 소유가 아니고 각자 소유임으로 상대 배우자의 동의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 금전 치용이나 재산 매각에도 마찬가지로 이다. 한인동포 간 한글로 작성된 금전차용증서 중 채무자의 배우자의 동의가 없는 한글차용증서를 종종 본다. 법리적으로 하자가 있다고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2) 법인 채무보증을 하는 경우에는 서명인이 회사 대표권이 있는지 법인의 정관에서 확인이 필요하며, 채무보증에 주주총회의 승인이 필요한지, 감사회의 승인이 필요한지 정관에서 확인이 필요하다. 회사 대표권이 없는 사람이 채무보증서에 서명하면 민법 제1320조에 규정된 계약의 적법

조건 미충족으로 하자 보증서가 된다. 마찬가지로 정관에 규정된 주주총회나 감사회의 동의없이 서명한 채무보증서는 하자 보증서가 된다.

(3) 보증인의 주소를 기재한다. 한글 차용증서에 보증인의 성명만 있고 주소는 보이지 않는 경우를 종종 보는 바 혹시라도 법적 처리가 불가피한 경우에는 보증인의 주소가 분명해야 한다.

(4) 분쟁 발생 시 어느 나라(*인도네시아, 한국) 어느 기관(법원, 중재원)에 의뢰해서 해결한다고 기재한다.

(5) 채무보증서를 일반문서로 작성할지 공정증서로 작성할지 결정한다.

6. 결론

가. 빌리는 돈을 갚기 위한 보증으로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부동산에 대한 근저당권이나 동산에 대한 양도 담보권을 제공하는 경우에도 채권자는 왕왕 추가로 특정인의 Personnel Guarantee, 법인의 Corporate Guarantee 혹은 연대보증을 요구하고 보증인의 항변권 포기를 요구하는 경우가 있으며, 돈이 필요한 채무자는 채권자의 요구를 거

부하지 못하고 이에 응해주고 있는 실정이다. 채권자 입장에서는 저당권이나 양도 담보권에 연대보증, Personnel Guarantee에 보증인의 항변권 포기까지 받아 놓으면 법적으로는 거의 완벽하게 채권 회수 보장을 받게 된다.

나. 채무자는 채무 이행 의무가 있으므로 저당권이나 양도 담보권 제공이 당연하나, 보증인의 입장은 다르다. 현지 법인의 경영을 맡은 책임자라 할지라도 사주가 아닌 직원의 신분이 사람은 연대보증이나 Personnel Guarantee는 적극적으로 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채무 상황이 이뤄지지 않으면 회사 책임자는 물론이며 보증인도 출입국 제한을 받을 수 있으며, 개인적으로 경제적인 파탄을 당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다. 채무 이행을 보증하는 연대보증이나 Personnel Guarantee는 일해주고 봉급을 받아 가족의 생계를 유지하는 임직원이 져야할 짐이 아니고 회사를 소유하고 있는 사주/주주가 감당해야 할 몫이다. 채무자인 회사가 채무를 상환하지 못하는 경우에 채무보증인은 경제적인 피해와 정신적인 피해를 면하기 어려움으로 회사의 사주는 회사의 주인인 아닌 임직원이 회사의 채무 보증을 서게 하는 일을 삼가야 할 것으로 본다.



2024 임원외비 남부명단

기준 : 2024.1.1 ~ 2024.9.27

번호	직책	성명	회사명	금액(US\$)	비고
1	회장	박재한	JAVA PALACE HOTEL	20,000	
2	명예회장	신기업	PT. HANINDO EXPRESS UTAMA	10,000	
3	명예회장	양영연	PT. TAEWON INDONESIA	10,000	
4	명예고문	김우재	PT. KOIN BUMI	5,000	
5	고문	김우진	PT. SAMINDO ELECTRONICS	5,000	
6	고문	김준규	PT. CIPTA ORION METAL	5,000	
7	고문	신규태	PT. INDO SUNG IL JAYA	5,000	
8	수석부회장	김종현	PT. KOIN BUMI	10,000	
9	수석부회장	손한평	PT. DONGSAN HOLDINGS	10,000	
10	부회장	강선학	PT. ALPHA TOY INDONESIA	5,000	
11	부회장	강호성	PT. ANUGRAH CIPTA MOULD INDONESIA	5,000	
12	부회장	김문수	PT. QUTY KURNIA	5,000	
13	부회장	김창곤	KODECO ENERGY CO LTD	5,000	
14	부회장	박상갑	PT. VIDEX INDONESIA	5,000	
15	부회장	박성대	PT. HANJIN INDONESIA JAYA	5,000	
16	부회장	양태화	PT. BOSUNG INDONESIA	5,000	
17	부회장	오인택	PT. BANK IBK INDONESIA TBK	5,000	
18	부회장	이우열	PT. BANK BUKOPIN TBK	5,000	
19	부회장	이정호	PT. HEONZ ROYAL JAYA	5,000	
20	부회장	이정휴	PT. GEE SAN INDONESIA	5,000	
21	부회장	이종남	PT. SINYOUNG ABADI	5,000	
22	부회장	정용완	PT. HUNG A INDONESIA	5,000	
23	부회장	하재수	PT. ROYAL PUSPITA	5,000	
24	자문위원장	구종율	PT. JASINDO DUTA SEGARA	2,000	
25	자문위원	강희중	PT. SUNG TECHNOLOGY	1,000	
26	자문위원	길병완	PT. DAEYOUNG DUNIA SUBUR	1,000	
27	자문위원	김소웅	PT. SCI	1,000	
28	자문위원	김영만	PT. BATAVIA CHEMTEK	1,000	
29	자문위원	김영욱	PT. GAYA INDAH KHARISMA	1,000	
30	자문위원	김주철	PT. STAR CAMTEX	1,000	
31	자문위원	김태화	PT. EEN STEEL INDONESIA	1,000	
32	자문위원	김희익	PT. EPS INDONESIA	1,000	
33	자문위원	석웅치	PT. DAYUP INDO	1,000	
34	자문위원	엄정호	PT. ING INTERNATIONAL	1,000	
35	자문위원	오세명	PT. SUNGLIM CHEMICAL	1,000	
36	자문위원	이승민	PT. YSM & PARTNERS	1,000	
37	자문위원	이종현	PT. LEO KORINSIA	1,000	
38	자문위원	이진호	PT. JIN YOUNG	1,000	
39	자문위원	조규철	PT. DONG JUNG INDONESIA	1,000	
40	자문위원	채만용	PT. CITRA BINA MAJU JAYA	1,000	

번호	직책	성명	회사명	금액(US\$)	비고
41	자문위원	하연수	PT. SEOLIN NIAGATAMA	1,000	
42	이사	강병찬	PT. GLOBAL INDOREKSA ASIA	1,000	
43	이사	강수한	PT. CHAEUM DESIGN	1,000	
44	이사	강윤석	PT. PLATECH MOLD INDONESIA	1,000	
45	이사	김경곤	PT. SUKWANG INDONESIA	1,000	
46	이사	김민규	PT. WOORI CONSULTING	1,000	
47	이사	김영율	PT. SUNG CHANG INDONESIA	1,000	
48	이사	김일태	PT. OROM	1,000	
49	이사	김형근	PT. GAYA INDAH KHARISMA	1,000	
50	이사	김호권	PT. SUNSHINE TECHNICA INDONESIA	1,000	
51	이사	김화룡	PT. BANGUN MAJU LESTARI	1,000	
52	이사	남궁훈	PT. HANWA LIFE INSURANCE INDONESIA	1,000	
53	이사	노예범	PT. SAM PUTRA INTI	1,000	
54	이사	박광률	PT. SHINWOO GLOBAL INDONESIA	1,000	
55	이사	박영진	PT. JUBIT CONSULTING INDONESIA	1,000	
56	이사	박주상	PT. TOU RUBBER INDONESIA	1,000	
57	이사	백상현	PT. CKD OTTO PHARMACEUTICALS	1,000	
58	이사	손석기	PT. PERKASA INDAH MAKMUR	1,000	
59	이사	송판원	PT. KORYE POLIMER	1,000	
60	이사	신호진	PT. HANINDO EXPRESS UTAMA	1,000	
61	이사	안창섭	PT. PETRASAKTI MADYATAMA	1,000	
62	이사	양시완	PT. KISWIRE INDONESIA	1,000	
63	이사	오동훈	PT. FNS TRANSBUANA	1,000	
64	이사	유용선	PT. DAEHWA INDONESIA	1,000	
65	이사	윤수학	PT. DAE YOUNG APEX	1,000	
66	이사	이상일	PT. UNGARAN INDAH BUSANA	1,000	
67	이사	이성삼	PT. LSS (LIGA SEJATI SEJATRA)	1,000	
68	이사	이승수	PT. SINYOUNG ABADI	1,000	
69	이사	이옥찬	PT. KORINA SEMARANG	1,000	
70	이사	이지완	PT. JIN YOUNG	1,000	
71	이사	이철훈	PT. INDO BOX UTAMA JAYA	1,000	
72	이사	이한주	PT. SAJI SEGAR LESTARI	1,000	
73	이사	장영관	PT. LAYCO	1,000	
74	이사	정상봉	PT. DAESANG INGREDIENTS INDONESIA	1,000	
75	이사	정창섭	PT. DAEWOO LOGISTICS ASIA	1,000	
76	이사	조용재	PT. SUNG CHANG INDONESIA	1,000	
77	이사	최재혁	PT. INDO BUMI LESTARI	1,000	
78	이사	최재희	PT. STONE CANYON INDONESIA	1,000	
79	이사	최제동	PT. CMS CHEMICAL INDONESIA	1,000	
80	이사	최태립	PT. INTERNATIONAL TOTAL SERVICE & LOGISTICS(ITL)	1,000	
81	이사	홍기호	PT. AURORA WORLD CIANJUR	1,000	



긴급전화번호

경찰	POLICE (Polisi)	112
범죄 및 도난 신고		110

소방서 (화재신고)	FIRE BRIGADE (Dinas kebakaran)	113
---------------	-----------------------------------	-----

응급차	AMBULANCE (Ambulan)	118 119
-----	------------------------	------------

민간구급차 서비스	PRIVATE AMBULANCE SERVICES	(021)7506001 =International SOS (24시간대기)
--------------	----------------------------------	--

■ 전화번호 안내

시내.....108
Directory Service(City)

시외.....105, 100
Directory Service(Suburbs)

국제전화.....001, 008

■ 교통기관

수카르노 하타 공항 안내.....(021)5505307/8/9
Airport Information.....5505179

택시예약(블루버드클럽).....(021)7917 1234
(24시간 접수)

고속도로 정보.....14080
(Toll Jabotabek)

교통사고 Traffic Accidents.....1500669
NTMC (SMS Center).....9119

열차시간안내.....121
WAKAI 121.....081111 2111 121

■ 재인도네시아 한국인관련 주요기관

한국대사관.....(021)2967 2555

영사과.....(021)2967 2580

대사관 발리분관(당직폰).....0811 3831 3659

재인도네시아한인회.....(021)521 2515

한인회 24시간 비상연락.....0812 1960 308

■ 항공사 안내

대한항공(시내).....(021)521 2180
(터미날3).....(021)8082 2198/9

가루다(Call Center).....(021)2351 9999
0804 1807 807

아시아나 항공(시내).....(021)5031 1030
(공항).....(021)8082 2291~2

■ 우편

중앙자카르타 우체국.....(021)384 4188

■ 각종 고장 문의

전기고장 문의.....123

전화고장 문의.....188

수도고장 문의 (Palyja Jakarta).....1500223

개인회비는 매년 Rp. 30만 입니다.

한인회비 납부를 통한 사랑의 나눔을 실천할 수 있는 재원 마련에
한인동포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재인도네시아 한인동포여러분!

인도네시아 한인 행려병자의 병원치료비와 불법 체류자의 한국 귀국에 필요한 항공편을 제공하고,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다문화가정 및 생활보호대상자에게 ‘사랑의 전화’를 통한 후원 등 여러분의 개인회비는 인도네시아에서 함께 살아가야 하는 한인에게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재인도네시아한인회장 박재한 배상

<보내실 곳>

	BANK WOORI SAUDARA INDONESIA	BANK KEB HANA INDONESIA
계좌번호 (루피아)	Rp. A/C NO: 200-913-783689	Rp. A/C NO: 220-200-5949
예금주	YAYASAN WARGA KOREA	YAYASAN WARGA KOREA

문의처: 한인회 사무국 021 521-2515

● 주요기관

한국대사관	2967 2555
영사과	2967 2580
주발리분관(당직폰)	0811 3831 3659
주아세안대한국대표부	2967 2570
코트라자카르타무역관	574 1522
한국국제협력단	2992 1900, 2992 2100~1
코리아센터빌딩	525 6525
한국산업인력공단	527 2612
자카르타한국문화원	2903 5650
한국관광공사자카르타지사	5785 3030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5292 1302
한국생산기술연구원	2954 03357

● 한인단체

재인도네시아한인회	521 2515
한인회 비상연락전화	0812 1960 308
한국국제무인회	0817 110 234
세계한민족여성네트워크(KOWIN)	0815 1170 8882
한인니문화연구원	0816 1909 976

● 한인잡지

한인뉴스	521 2515
교민세계	739 9025
여명	9955 5859

● 교육기관

한국국제학교 (JKS)	844 4958-61
꿈나무학교	5579 4407
간디국제학교	690 9902
뉴질랜드국제학교 (NZIS)	7884 1226
싱가폴국제학교 (SIS)	7591 4414
(끌라빠가딩)	460 8888
영국국제학교 (BIS)	745 1670

자카르타국제학교 (JIS)	750 3640
북국제학교 (NJIS)	453 1001
호주국제학교 (AIS)	782 1141
일본학교 (JJS)	745 4130
네덜란드국제학교(NIS)	782 3929
독일국제학교(DSJ)	537 8080
TAIPEI 국제학교(JITS)	452 3273
SPH (땅그랑)	546 0234
(짜까랑)	897 2786
RICS	7590 3342
헤리티지인터네셔널 (HIS)	0812 971 2306
LYCEE Int. FRANCAIS	750 3062
JIPS	3004 2885
JIMS	744 4860
PAKISTAN EMBASSY SCHOOL	390 4137
ACG 국제학교	780 5636
ICSCE	780 7313
익투스크리스천국제학교	7590 8820/50
Sinarmas World Academy(SWA)	
SWA BSD	0812 8689 2897
SWA Thamrin	2993 7234

● 유치원

Hansol Kids	765 6588
Brain School	7179 4787
Bambino (Cipete)	2276 64497/7203356
사랑	835 1540
성모	7884 2467
하나	844 5283
꿈나무유치원	5576 7509

● 골프장

BOGOR RAYA	0251)827 1888
CENGKARENG	5591 1111
CILANGKAP	8459 5687
DAMAI INDAH [BSD]	537 0290
DAMAI INDAH [KAPUK]	588 2388
EMERALDA	875 9019
GADING RAYA	546 7668
GUNUNG GEULIS	0251)825 7400
IMPERIAL	546 0120
JABABEKA	893 6148
JAGORAWI	875 3810
KEDATON	590 9236
KEMAYORAN	654 1156
KRAKATAU	0254)385 319
MODERN	552 9228
PADANG GOLF HALIM	800 5762
PALM HILL	8795 4888
PANGKALAN JATI	751 3326
PERMATA SENTUL	8795 1787
PONDOK CABE	740 5382

PONDOK INDAH	769 4906
RAINBOW HILL	0251)827 1212
RANCAMAYA	0251)824 2282
RAWAMANGUN	475 4732
RIVER SIDE	867 1528
ROYAL JAKARTA	8088 8999
SEDANA	0267)644 730
SEDAYU	5020 8088
SENTUL HIGHLAND	8796 0266
SUVARNA	0811 1586 873
TAKARA	549 6371

● 골프교습

Easy Golf	801 2048
골프투어 자카르타	7013 8166
심스골프	570 3063
배준원골프교실	781 7679
PGA골프레슨(까라와찌)	5577 8936
골프투어 & 골프아카데미	0811 143 437

● 은행

IBK인도네시아은행 본점	5790 8888
수출입은행	525 7261
KEB 하나은행 본점	522 0223
우리소다라은행 본점	2995 1915
신한은행	2975 1500

● 가구

조지언 퍼니처	2276 6887
아이니갤러리	581 4690
올댓티크 원목가구	0858 8831 1218
로만 인테리어	0811 847 699
그린 가구	0813 1000 8778

● 건설 / 설비 전기

DASOM Indonesia	2940 3042/5
건설 중장비 렌탈	08111 43437
PT. SSA(종합건설)	0812 1956 0188

● 꽃/화환

꽃과 좋은날	0811 846 174
나무플라워	0812 1314 2681

● 기타

에셀바틱	0813 1038 4812
자카르타 명상센터	0821 7777 9972
땅그랑 명상센터	0821 7777 9973
바람소주	0858 8831 1218
스폰지	7095 4771
아시아 진주	7278 8327
Good Deal Gallery	573 6233
트리비움발리마사지스파	0813 9861 1388

▶▶▶
한인뉴스
광고문의
521-2515



한인뉴스 광고문의 521-2515

● 노래방

팡팡노래방 & 치킨	720 7275
Beat Box(골라빠가딩)	9773 4780
IDOL가라오케(땅그랑)	021 546 0840

● 렌트카/기사클럽

강남렌트카	0812 109 7631
서울렌트카	6870 9335
우리렌트카	0811 193 069
한성렌트카	889 0471
짱구기사클럽	7279 8233
링크렌트카	9583 1000

● 미용실/피부관리

Jasmin Hair Salon 1	7280 0019
	0811 956 2500
Jasmin Hair Studio 2	7278 0255
Jasmin Hair Studio 3	7278 6530
레르아뷰티샵	0858 5111 1222
스칼렛미용실, 피부관리실	547 5867
아마란스화장품	723 1537
JR SALON	7279 7906
Hair Perm	7280 1404
닥터큐(피부미용)	5696 7090
자르헤어	7279 6998
선스파	021-2793-3625

● 변호사 사무소

이승민 법률사무소	525 5959
P.A.K. 변호사사무실	797 6254
이소왕 변호사 사무소	520 7153
K LAW 변호사 사무소	5785 3271
법무법인 인도양	527 3077

● 부동산

그린 부동산	726 4949
2005뉴밀레니움	7082 0056
리츠부동산	6896 7249
대한부동산	0813 1447 6593
한국부동산	0811 876 204
대박부동산	08111 555 615

● 병원

관준한의원	739 7854
뉴월드메디칼	7279 3809
보청기센터(Hearing Vision)	7280 1819
실로암 한의원	720 1779
미르한반병원	0856 9453 7974
Central Clinic	2709 9272
아리따움 치과 /피부과	725 3458
향림당 한방병원	720 7727
Indo Dental (치과의사 정혜정)	0815 1004 2004
RS. BUNDA	322 0005
RS. GRAHA MEDIKA	530 0887
RS. MEDISTRA	521 0200
RS. M.M.C	522 5201
RS. PONDOK INDAH	765 7525
RS. Siloam (땅그랑)	546 0055
RS. Siloam (찌까랑)	8990 1911
Matahari Klinik	722 6391
Dokter Korea	0815 8539 7777

● 슈퍼마켓

뉴서울슈퍼	725 0520
뉴부산슈퍼(땅그랑)	5940 0375
만나슈퍼(버까시)	821 8705
무궁화 본점	722 2214
무궁화 땅그랑점	558 2214

무궁화 찌까랑점	0851 0075 2214
무궁화 다르마왕사점	723 3214
무궁화 뽀독인다점	7590 5488
무궁화 골라빠가딩점	453 3624
무궁화 찌부부르점	2217 7281
무궁화 수라바야점	031-563 4645
무궁화 스마랑점	024-7640 4783
무궁화 반동점	022-8200 1674
무궁화 꼬따 바루점	022-8680 2262
무궁화 족자점	0274-288 5156
무궁화 발리점	0361-475 2734
무궁화 보고르점	0251-831 5175
무궁화 즈빠라점	0813 2158 5673
무궁화 뽀루잇점	0811 841 4188
무궁화 마카사르점	0811 46 0678
무궁화 빈따로점	0821 2292 9591
무궁화 바뽀점	0812 6664 8989
무궁화 BSD점	0811 1565 988
무궁화 빈판점	0812 6664 8989
무궁화 PIK점	0813 8839 6190
무궁화 반자르마신점	0811 5595 777
무궁화 가딩세르폰점	0813 1630 5312
무궁화 뽀렐방점	0813 9067 0995
무궁화 뽀띠아낙점	0812 5623 112
무궁화 꾸닝안점	0821 1448 0988
무궁화 꼬본주룩점	0813 8610 8800
무궁화 아마르따뿌라점	0815 9977 689
무궁화 롯데에비뉴:	0811 870 386
무궁화 쫄뽀까마스점	0818 839 846
무궁화 뽀뽀뽀낭점	0811 8822 891
무궁화 솔로점	0858 0375 3035
무궁화 메단점	0813 7634 2842
무궁화 발릭바판	0821 4861 0000
우리슈퍼(버까시)	8240 4575
월드마트	8430 2535
하나마트	8459 0064
한일마트	723 2086
한일마트(땅그랑)	5577 8633
K-마트	2277 5526
KOREA MART(수라바야)	031 734 3989

● 식당

가나레스토랑	0811 918 132
가마골	021 7278 7789
가야성	725 7373
가호(MOI)	0811 9966 677
강남	0812 2323 5119
강남스타일	2952 8443
경복궁(찌부부르)	021 3885 3040
대가	8459 2871
대감집	723 3315
마포	7279 2479

woori

우리컨설팅

정직 · 성실 · 전문성의 우리컨설팅이 함께 합니다
투자/법인/인허가/비자/채용/부동산/리서치

Tel : 021-7918-4239 | HP : 0811-146-3700
Email : master@woori-consulting.com
Website : www.woori-consulting.com



서로 도와 함께 가는 우리

www.doowang.net

DOOWANG과 함께 가면
먼 길도 가까워 집니다



하루에도 몇 번씩 나를 돌아봅니다.
고객은 나의 거울이요 진정한 스승이십니다.
한분 한분의 스승을 만나기 위해
'나를 가다듬고 精과 誠과 禮를 다해 찾아뵙겠습니다.'

고객을 위해 바르게-

DOOWANG Consulting
Since 1994

Graha Surveyor Indonesia, 19th Floor Suite 1901
Jl. Jend. Gatot Subroto Kav. 56, Jakarta 12950
Tel. (62-21) 2941-0780 (hunting) | Fax. (62-21) 2941-0775
Mobile: 0811-953607 | www.doowang.net
E-mail: lsw@doowang.co.id | leesowang@gmail.com



SMILE KIMBAB
Living World Alam
Sutera, UG floor,
Serpong Utara,
Tangerang Selatan

081292184018



SMILE KIMBAB

명가면옥	0254-849 3571
면의전설	521 0230
명가면옥	2751 0800
미가	0818 85 8026
미스터 박	5140 1142
버까시 서울	8895 7604
베이징	0254-837 0242
보신명가	789 0220
본가	739 6229
삼원가든	2988 9505
설악추어탕1(세노파티점)	722 1852
설악추어탕2(끌라빠가딩점)	2937 5435
소래포구	8990 5051
청기와	726 1924
청담가든	0815 7342 5802
청해수산	527 8721
토박	725 1135
한옥(자카르타)	0812 1119 1991
한옥	0254-385 588
감닭	4584 5837
다미	4585 0040
대장금	0816 885 956
마포갈매기	0812 9313 9503
명가면옥	8990 4552
미스터 사시미	4585 3484
미추홀	6583 1472
산정(찌까랑)	2909 3454
(땅그랑)	547 3172
서울	4585 4454
설악추어탕	2937 5435
감미옥	5579 4612
강촌	5579 3681
꼬꼬따리아	0254 394 255
대가야	547 5511
명가면옥	552 2745
산들	5579 5821
상하이	5573 5550
산해진미	5577 8182
서울일식	546 0840
아리수	0254-781 0059
알리사	0254-60 1430
오리랑장어랑	5577 6457
우다움	021 5081 3656
웅대리 (SCBD)	021-5150 7734
(Kelapa Gading MOI)	0812 5723 7627 (WA)
	0811 887 5705 (WA)
우리들	552 4047
조선민물장어	5573 3308
종가레스토랑	551 3273
청기와	0858 1377 3388
수하루	5577 8585

태능갈비	7055 0888
테라스 가든	8493 9321
한마당	5577 6770
산정 까라와치	547 3172
산정 찜까랑	2909 3000
산정 까복	3005 1650
유가네	2221 3392
본가 (족자카르타)	0274 2831440
치맥 (족자카르타)	0274 2831869
예원	021-7212-0533
찬찬	0812-1060-4848
숙달	0821-4007-7256
지원갈비	021-7212-0436
쭈꾸미도사	085775245314
하나	0254-393 2146
하누	021 722 2365
한상 (PIK)	0812 8881 1532
홍대포차	726 4999
홍콩반점	0812-2442-6092

• 신문

한국신문 종합대리점	0812 1004999
한인포스트	4586 9199
JAKARTA POST	530 0476
자카르타경제신문	5290 0117

• 안경원

옵틱무티아라안경원	5793 7969
-----------	-----------

• 여행사

나래여행	5296 0749
하나족자트래블	0274 887 488
굿데이투어	4586 0598
그린관광	798 3322
Red Cap	5797 3397
Rodem Tour	4587 8833
마타아리 여행사	521 2212
부미관광	7279 0011
비자여행 Malaysiaro	603 9274 1780
솔로몬투어	0813 1934 1000
싱가폴투어(비자)	2903 6647~50
스카이투어	391 1381
153 TOUR	5720 153
코리아트래블	230 3116
코인관광	720 7230
하나관광	520 2450
호산여행사	691 3602
HAPPY TOUR	2950 8903
Inko Batam(바탐)	0778 462 500
사랑투어	2912 5099

● 인니어통역/번역

Mrs. Lee 021 743 2687
CITRA 781 7771

● 의료기

PT. CGM INDONESIA 0811 155 652

● 인터넷

HANASTAR INTERNET 2270 8282
S-Net 7080 7886

● 인테리어

AEGIS BLIND 2943 3876
H2 Stuff 4586 7860
KJ건축 인테리어 0821 2564 1777
Living A&I 7278 0704
로만인테리어 0811 847 699
아이니인테리어 0812 1928 5578
그린 인테리어 0813 1000 8778
INNOMATE 7919 2006
올댓테크 원목가구 0858 8831 1218
INPLAN DESIGN 0857 1198 6516

● 운송 해운 이삿짐

소명통관 4585 9283
샌다이 이주화물 8770 6361
아네카 트란스 520 4181
트란스 우따마 829 6218
프라임 운송 인도네시아 021 526 5512
페나스콧 로지스틱스 2902 3838
CARGO PLAZA 831 7779
DHL 7919 6677
FIRSTINDO EXPRESS 5296 0024
PANTOS LOGISTICS 8998 2855
HAES IDOLA CARGO 8591 8488
HANINDO EXPRESS 252 5123
KORNET LOGISTICS 8379 3455
QCN 7834 1190
Wings Global 4585 8053
ZIMMOAH 2937 5670
WIKASA 8379 1935

● 자동차 정비소

벵켈 코리아 모터스 885 4034

● 증권/보험

삼성화재 021 8062 2000
우리코린도증권 797 6210
클레몽종합금융 797 6363
메리츠코린도보험 797 5959
키움증권 5010 5800
KDB 대우증권 515 1140



JASMIN HAIR SALON

Jasmin Hair Salon 1 (한국 미용실)
Darmawangsa Square 1F G46 Jakarta Selatan
영업시간 09:00~19:00 Tlp. 021 7280 0019/0811 956 2500

Jasmin Hair Studio 2 (현지 살롱)
영업시간 09:00~20:00 Tlp. 021 7278 0225

Jasmin Hair Studio 3 (맞사지, 네일 전문점)
영업시간 09:00~20:00 Tlp. 021 7278 6530
Darmawangsa Square GF (Studio 2 G40, Studio 3 G54)

KB손해보험 3199 0247
한화생명 727 88150

● 컨설팅

오롬컨설팅 4585 4910/11
럭키비자 0813 1133 2122
글로벌컨설팅 7280 0524
두왕컨설팅 520 7153
우리컨설팅 7918 4239
컨설팅 21 799 6182
한생컨설팅 5290 0670
KMAQA (ISO인증원) 573 1576
비엔시 컨설팅 2278 0470/4013
한국컨설팅 0811 876 204
OK컨설팅 0852 8185 5551

● 인재채용

OSSelnajaya(세르나자야) 572 7214

● 컴퓨터, IT

리콤컴퓨터 725 1606
컴퓨터 원 5576 5228
지텍컴퓨터 5696 7001
하나로정보통신 9260 0950
한비텔 8379 1144
인도웹 www.indoweb.org 0811 888 9609

● 택시

SILVER BIRD 798 1234
BLUE BIRD 794 1234

● 하숙

경복궁 하숙(리또찌까랑) 081314157581
가딩 홈스테이 9661 5877

갈릴리 게스트하우스 0858 1341 3222
갤러리 게스트하우스 0813 1514 9978
나인비즈니스 하숙 9940 5005
더블루 레지던스(찌까랑) 0811 1979 170
블루하우스게스트하우스 08128051 3637

KAKAOTALK ID : theblueid

둥지 하숙 3608 9316
리또찌까랑 하숙 0812 1066 7757
레저 게스트하우스 0811 143 437
모나리자 8990 9570
사랑채 게스트하우스 0813 8059 1625
세노파티코리안 하우스 0821 1336 1111
쉼터 하숙 726 8775
시내중심 게스트하우스 0815 1780 3680
이모네 하숙 0818 964 946
엘지 게스트하우스 0812 100 7135
위자야 게스트하우스 0815 1024 8888
한발 830 9990
한울타리 739 5841
한아름 게스트하우스 723 8302
현대 하숙 0818 795 787

● 항공

대한항공 (시내) 521 2180
(터미널3) 8082 2198/9
GARUDA (Call Center) 2351 9999
0804 1807 807
아시아나 항공 (시내) 5031 1030
(공항지점) 8082 2291~2
싱가폴 항공 570 4411

● 호텔

그랜드멜리아 526 8080

오름 컨설팅
OROM CONSULTING
 SINCE 1996



ITAS - ITAP - SILVER VISA
PENDIRIAN & DOKUMEN PERUSAHAAN
APOSTILLE - NATURALISASI
법인설립 (PMA & PMDN)
 VISA INTERNATIONAL (Korea, China, Jepang, Singapore, Schengen, etc.)

Ruko Plaza Pasifik Blok.B-2 No.39
 Kelapa Gading - Jakarta Utara 14240

Winda (Team 1)
 (021) - 4585 6898
 (0811) -882 1462

(한국인) Kakao ID : indocity1991
 visa.orom@gmail.com
 www.orom.co.id

Suhada (Team 2)
 (021) - 2245 5879
 (0812) - 9759 8638

**소고기, 돼지고기와 함께
 신선한 참치(볼때기살, 뱃살,
 배꼽살)를 출시합니다!**



김군

고기고기
 밴드(김군 고기고기),
 카톡baguskim5050,
 087780948178로
 주문하세요

dailyindonesia.co.kr



데일리 인도네시아

**그대가 있어
 따뜻하다...**

● 종교 단체

<기독교>

가나안 교회(이병우)	021-8911-7591
	0821-1837-9995
꿈이 있는교회(김현준)	0821 2507 9069
땅그랑 교민교회(김재봉)	0815-1980-5788
사랑의 교회(이명호)	0815-7453-7254
자카르타소망교회(김종성)	021-739-6487
	0813-1104-3000
의의 나무교회(이의덕)	0813-8181-5570
예사랑 교회(박병삼)	0815-1041-9991
인도네시아 열린 교회	
(김용구)	0878-0844-5537
자카르타 늘푸른 교회	
(정형진)	0811-813-7529
자카르타 동부 교회	
(김정우)	0815-1016-5670
자카르타 믿음 교회	
(조광용)	0811-194-8291
자카르타 주님의 교회	
(김완일)	0811-192-7255
자카르타 중앙 교회	
(여성호)	0813-8103-9768
자카르타 한마음교회	
(고형돈)	0812-8983-1433
자카르타 한인 안디옥교회	
(김종근)	021-750-9548
자카르타 한인 연합교회	
(정효진)	0822-9898-0191
찌프라라야 은혜교회	
(고재천)	0811-841-312
짚레곤 늘푸른 교회	
(고재일)	0822-1361-2537
참빛교회(박윤길)	0813-1488-1753
한인열방교회(송광욱)	0811-951-762

반 동

반동 반석 교회	
(박성규)	0813-2039-8285
반동 아름다운 교회	
(박성훈)	0813-2233-0119
반동 한국인 교회	
(이제우)	0811-2233-1515
반동 한빛 교회	
(김정래)	0821-1920-3495
스마랑/족자	
스마랑 한인교회	
(윤성득)	0812-134-1932
족자카르타 사랑의 교회	
(서인석)	0856-4366-6891
족자카르타 우리 교회	
(김성태)	0812-2450-2126
한뜻교회(살라티가) 이기호	
	0298) 311 905
	0812-1538-8515

수라바야

수라바야 한인교회	
(박유신)	0811-3020691
수라바야 선교교회	
(박명수)	0812-3537-3054
메단&발리	
메단 한인 교회	
(조원동)	0813-6120-1305
발리 한인 교회	
(유호종)	0812-3676-8029
발리 세움 교회	
(정문교)	0821-4764-8665
칼리만탄	
발릭파판 한인교회	
(이성현)	62-8115400-863

만다린	314 1407
물리아	574 7777
상그릴라	570 7440
싸이드자야	570 4444
하야트	390 1234
크라운플라자	526 8833
술탄	573 8011
GSI Hotel & Resort	0858 8248 3211
자바 팔레스	2928 1111

● 환전

굿-머니	5793 9990
그린환전소	0815 1423 0114
글라빠가징	453 1166

사강머니체인저	5290 0233
위나머니체인저	7278 0929
뚜나스신암	797 6105
참피온머니체인저	4585 1158
환전	712 8556

반동 (지역번호 022)

● 식당

뉴캐슬식당	201 5007~8
명가레스토랑	200 7363
코리아하우스	203 1626
한국관	204 3069

<천주교>

한인성요셉성당 7884 3782
(찌까랑 공소) 8911 7547

<불교>

조계종 능인정사 724 7261
조계종 해인사 인도네시아 765 6036
(동부자바포교원) 0818 333 491
법연종 법연원 720 8607
조계종 고려정사 724 3571

<이슬람>

한국이슬람 인니지회 871 6906

● 서비스업

뉴캐슬사우나 201 5007~8
반동렌트카 0858-1111-4000
반동한인부동산 0858-1111-4000
반동컴닥터 0821-2222-6000

*발리지역의 문의는 당분간 발리한인회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동문회

● 중/고교

강경상고(민병무) 0818 879 149
경기고(구본찬) 780 0204
경남공고(이봉규) 0812 902 3800
경남중고(정낙현) 0813 8293 8557
경동고(강성원) 0812 8830 8566
경북고(노경인) 0815 1901 0575
경북고(이병수) 0816 181 3615
경성고(박영권) 0813 8805 1296
경신고(김진태) 7883 6372
경주중고(김홍규) 0818 141 635
구미 전자공고(이원규) 0815 1428 9329
계성고(최상록) 0811 249 038
광주고(선홍규) 0813 1536 5223
광주 사레시오중고 548 5112
광주 서중일고(이용하) 527 0150
광주 금호고 0811 176 184
광주 진흥고(박호섭) 0812 6666 3338
남성중고(임석균) 515 9277
대구고(김현철) 0818 718 535
대구대륜고(김우기) 0812 8763 9907
대구 상고(김진우) 825 0581
대구 영남고(오승현) 0858 4653 6899
대광중고(이민규) 0816 880 018
대원외고(권기훈) 0877 7779 4668
대전고(윤내선) 426 2954
덕수고(성기운) 0816 114 7364



아시아 진주 Asia Pearls

진주양식 직영을 바탕으로
최상의 품질을 정직한 가격으로 공급하는
아시아진주가 되겠습니다.






◆ 한국보다 훨씬 저렴한 가격으로 진주 전 품목 수출 및 도매(한국 배달 가능)
◆ 정품 다이아(GIA) 판매 - 최대 93% 환매보장 ◆ 순금 매입·매각 가능
◆ 순금 가공 가능(회사로고, 행운의 열쇠, 골프공 등 원하시는 형태)
◆ 모든 셋팅물 새로운 디자인으로 재가공 가능 ◆ 결혼 예물셋트(다이아, 진주)
◆ 최상품 게르마늄 건강팔찌 및 목걸이 판매

갤러리(위자아센터 옆)

Darmawangsa Square - City Walk Lt.1 No.28
Jl. Darmawangsa VI & IX Kebayoran Baru Jak-Sel
Tel. +62-21-7278-8327 HP. +62-888-110-2022

수출·무역

HP. +62-816-873-176, +62-816-1390-333
E-mail. 3spearl@hanmail.net
+82-10-5509-7751, +82-10-9824-8857



한인뉴스

광고문의

521-2515

동대문상고(곽기석)	867 3837	양정고(이종환)	0815 1033 1001	동국대(염정운)	0817 681 8599
동래고(박건우)	0815 1902 4123	여수고(유병관)	0818 479 862	동아대(이종현)	0811 151 7181
동성고(홍창형)	0812 102 2670	영등포고(정하승)	0811 140 334	목포해양대(이종재)	08111 975 205
동아고(여병철)	0811 187 554	오산고(조동혁)	0815 7432 7769	부산대(류재상)	0811 841 510
동인고(차명훈)	0815 950 0461	용산고(박승래)	0813 1842 1269	부산외대(이동훈)	0816 781 564
마상고(김만수)	0811 122 5239	유한공고(이선용)	0812 071 210	서강대(이철우)	0812 1177 399
목포중고(김용진)	568 0517	인천중/제물포고(한승도)	0818 912 698	서울대(정무웅)	797 5959
배재학당(이성수)	0815 1428 0295	여수고(유병관)	0818 479 862	서울시립대(이승수)	0811 869 302
배정고(김상훈)	0817 659 9473	영남고(오승현)	0858 4653 6899	성균관대(김진태)	0818 953 949
보성고(김유호)	5940 1282	전주고(남택열)	0811 877 108	숙명여대(서영자)	0815 1324 2799
보성교우회(박지배)	0811 976 537	정석항공고(백승엽)	0811 903 144	숭실대(김학수)	0811 879 701
부산기고(채윤규)	026 751 2483	중동고(김일태)	0812 1922 1462	아주대(서보상)	0815 1902 4220
부산 동고(이동훈)	0811 190 7967	중앙고(정재익)	0811 910 013	연세대(금민철)	0816 864 677
부산상고(박갑수)	0812 952 5404	진주 대아고(김영진)	5522 0041	영남대(김상수)	0812 103 8707
부산 중앙고(송명석)	0811 834 412	청주고(조영선)	0815 1901 4477	영산대(최재혁)	590 0401
부산고(조명국)	0811 1046255부	충남고(이수현)	0811 175 126	울산대(최재호)	723 0917
산 외고(선진세)	0813 8536 8434	한성고(박창화)	0816 912 302	이화여대(김미송)	0811 122 0566
서울고(이상열)	0811 916 953	해광고(서동희)	0813 9839 9286	인하대(이기홍)	0816 812 507
서울 대신고(서영석)	0813 1139 7145	휘문고(맹중호)	0818 973 986	전남대(최병욱)	0816 188 1233
서울 영동고(최성욱)	0811 1920 121			전북대(최성호)	0815 7232 3689
선린상고(김기석)	0817 648 9321	● 대학교		중앙대(최일형)	0813 1129 8822
성남고(성기채)	0815 1070 2424	강원대(송영석)	0812 1326 5977	충남대(노제익)	452 6968
성동고(구본욱)	025 161 1466	건국대(조선용)	0811 910 6707	충북대(최병인)	0817 778 857
성원고(강변창)	0811 891 458	경기대(박호섭)	0812 6666 3338	한국외대(최재광)	0811 968 478
수원 유신고(안성욱)	0813 1626 7777	경북대(이준혁)	0811 880 401	한국해양대(이승준)	0811 190 7718
순천 중고(김정욱)	0815 1932 9650	경희대(양승민)	0811 164 367	한양대(신송호)	0813 8981 5656
송문고(김영언)	0816 937 269	계명대(추교일)	0813 1824 5952	ROTC(사무국장: 김성일)	0811 805 606
신일고(금민철)	0816 864 677	고려대(안재완)	0812 819 82252	육군학사장교(김상진)	0812 8779 9035
심인고(김종필)	0815 1305 4150	공군 장교단(정태훈)	0811 9891 403		
안양공고(조한영)	0812 859 8483	부경대(서동윤)	0813 8568 1122		

재인도네시아 지역한인회

번호	지역한인회	직 위	성 명	휴대폰
1	재인도네시아한인회 [0812-1960-308]	회장	박 재 한	0816-825-931
		사무국장	최 인 실	0812-9881-6816
2	땅그랑반튼한인회	회장	채 만 용	0813-8621-5850
		사무국장	김 예 형	0821-8166-6137
3	찌까랑 한인회	회장	안 윤 근	0812-8164-8333
		사무총장	송 영 한	0812-902-6148
4	보고르한인회	회장	(공 석)	
		총무	임 성 필	0819-707-107
5	수까부미한인회	회장	김 흥 기	0811-980-337
		부회장	최 종 섭	0811-114-2163
6	반둥한인회 [022) 200-2154]	회장	김 은 수	0812-8811-1733
		사무차장	정 상	0815-4650-3667
7	중부자바(스마랑) 한인회 [024) 7648-2020]	회장	채 환	0822-2021-5725
		사무국장	유 성	0811-2777-490
8	동부자바(수라바야) 한인회 [031) 568-8690]	회장	이 경 윤	0817-321-833
		사무국장	이 대 섭	0812-1767-9007
9	족자카르타한인회 [0274) 497-761]	회장	박 현 두	0821-3595-5522
		총무	조 경 민	0821-3342-8818
10	즈빠라한인회	회장	박 호 섭	0812-6666-3338
		사무총장	조 영 성	0813-9032-3355
11	발리한인회 [0822 1996 3355]	회장	김 동 수	0811-394-551
		수석총무	김 성 희	0811-398-976
12	롬복 한인회	회장	박 태 순	0812-378-9841
		총무	이 용 구	0812-3810-4649
13	케프리주 바탐 한인회	회장	서 명 택	0821-7300-0120
		총무	윤 진 만	0857-7825-6241
14	메단한인회	회장	안 의 현	0811-6103-332
		총무	박 성 준	0813-7512-6888
15	마카사르술라웨시 한인회	회장(권한대행)	한 정 곤	0811-419-200
16	칼리만탄 한인회	회장	나 성 문	0811-506-4579
		사무국장	권 태 윤	0812-9881-6841

THEP

TRASINDO

SAMINDO

STI Indonesia

CEP

PSG

SBS

DONGHAE

SIMS

Synergy for Tomorrow

삼탄이 **ST** International 로 새롭게 시작합니다

MINTEC

SRT

ABM

Yeong Yang
Wind Power

KIDECO